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 하는 말을 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12일)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민주당표 정부 예산안 '불교 홀대' 비판 직면

국회, 12월 3일 여당 단독상정 예산안 확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상정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전통문화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 반영됐던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긴급보수 및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증액안이 최종적으로 삭제 혹은 대폭 삭감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수차례 반복된 종교편향과 '사찰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등으로 불교계 공분이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요청까지 사실상 묵살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는 12월 3일 본회의에서 607조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슈퍼예산' 으로 지칭될 만큼 대규모였지만, 이 가운데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증액요청은 사실상 묵살됐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예산증액안' 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증액안' 은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확

전통사찰·문화재 보존위한
예산 증액요청 사실상 묵살
"코로나 이후 사찰 피해에도
보존관리 예산 제자리걸음"

인됐다. 또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20%로 책정됐던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자부담율도 애초 논의됐던 10%가 아닌 5% 경감에 그쳤다.

애초 예산증액안은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해 조계종이 소관부처와 국회에 요청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사찰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총무원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20%로 책정됐던 자부담비율의 10% 경감을 포함해 예산총액의 82억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사업에서 113억 2800여만원 증액을 신청했다. 이는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예산안에 반영됐고 국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됐다.

본지가 정부 제출 예산안과 소관부처 제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 심사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소관부처 및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9월 3일 조계종의 예산 증액 요청을 반영한 예산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는 11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각각 통과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예결산특위는 대체토론 결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통사찰 개보수에 그치지 말고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지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시급한 보수정비가 요구되는 전통사찰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관위 심사에서 증액취지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토대로 예산증액안이 상정됐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최종 수정예산안에는 사실상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예산의 증액분은 아예 삭제됐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은 19억여원 증액에 그쳤다. 자부담비율 경감요청도 5%만 반영됐다. 다만 문체부가 조계종 총무원이 요청한 증액을 일부 삭감한 대신 개별예산으로 제출된 17개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은 변동없이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이 관할한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 증액안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문화재 보유사찰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문화재를 온전하게 유지보존하기 위한 필수인력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불교계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도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대한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불편한 시각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가 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 대부분을 소유하고 보존관리해 온 조계종을 상대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 발언 이후, 불교계를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전승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에 감사하다"며 "예산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책정됐던 전통사찰 보수시 자부담비율 20%를 10%로 낮춰달라는 요청 역시 근본적인 검토조차 없이 '던져주기식' 으로 5% 감경하는 등 행태로 전통문화 홀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조계사 '2022 소원탑' 설치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12월 6일 경내에 '2022 소원탑' 을 설치했다. 조계사를 찾는 누구나, 내년의 발원을 소원지에 적어 탑 주위에 걸 수 있도록 했다. 지현 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만큼 서로가 아끼고 다독이는 마음이 모일 때 여러분의 소원 또한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핌으로 모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사

20돌 맞는 템플스테이 '글로벌 브랜드' 추진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서 밝혀

20주년 기념사업 기조 발표해
기념식·나눔 이벤트 등 예정
내년 11월 리뉴얼 브랜드 선포
'Again 2002' 해외 사업 추진

내년에 운영 2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열린 '2021년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 에서 20주년 기념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

8일 진행된 설명회에서 김필제 20주년 기념사업 특별기획위원은 약 1시간여 동안 2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기조에 대해 발표했다.

김 기획위원에 따르면 내년 20주년 사업은 대내(정부 및 사찰 등 주요관계자)·국민·대외(외국인 및 해외 참가자)로 대상을 나눠 진행된다.

대내 사업은 '성과와 의미 조명·미래 가치 제시' 를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주요사업으로는 △20주년 기념식(2월) △20주년 다큐 및 홍보영상 제작(8월) △20주년 기념 국회세미나(11월) △20주년 사진전(11월) 등이 추진되며, 내년 11월 중에는 리뉴얼된 템플스테이 브랜드가 선포될 예정이다.

김 기획위원은 "기념사업을 통해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문화체험 사업의 양적 질적 가치를 조명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불교적 미래 가치를 표방한 경영 방침 및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 사회통합을 위한 공양' 을 추진방향으로 삼은 국민 대상 사업은 20년간 많은 사랑을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채워진다. 추진 예정인 '국민 감사 이벤트-같이나눔 템플스테이' 는 운영사찰을 공모해 진행된다. 공모는 별도로 제작된 20주년 템플스테이를 통해 이뤄지며, 응모에 선정된 운영사찰은 최소 1개 이상의 특별템플스테이를 운영해야 한다. 문화사업단은 공모에 응한 사찰 중 사찰음식 홍보행사 및 특화사찰 행사를 기획한 곳은 이벤트와 연계해 푸짐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몇 가지 예시 프로그램도 제안됐다. 2002년 태어난 템플스테이 동갑내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갑내기 템플생파 주간' 은 2002명에게 선착순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휴가에 진심, 직장인 템플스테이' 는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외부와 접속을 차단에 오롯이 쉼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모님과 함께 라떼 템플스테이' 는 20~30대 자녀와 50~60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템플스테이이며, 비건인·사찰음식 관심층을 대상으로 한 '비우면 채워지는 사찰음식템플스테이' 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 기획위원은 " '같이 나눔 템플스테이' 는 20년간 템플스테이를 사랑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중해진 사람과의 관계를 템플스테이가 이어주는 매개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외 사업으로는 'Again2002' 이벤트를 통한 주한외교사절 템플스테이, 외신기자 초청 팸투어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킬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기획위원은 "참가 호응도가 높은 구미 대상 홍보와 마케팅을 유지하며 사찰음식과 문화콘텐츠를 주축으로 새로운 해외지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사업단은 20주년 기념사업의 성패는 운영사찰들의 동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김 기획위원은 "2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은 운영 사찰 주지 스님과 지도법사 스님, 실무자에게 달려 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수 입재식에서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2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사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경 스님은 "내년 2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문화사업단의 사업들을 보면 일선 운영사찰에서 참여·응용할 사업들이 적지 않다"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운영사찰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일하는 재미가 날 것이다. 예산 지원의 폭도 대폭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사업단의 20주년 사업을 시기적으로 잘 살펴서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관련 기사 3면〉

제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

서산시 '가톨릭성지 세계화 사업' 우려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위한 정부예산 7억원 배정

교황청 선정 국제성지 승인 후
추진계획 수립 · 내년 본격 추진
순교터에 공원 · 압송로 복원도
"가톨릭신앙 도 넘은 사업화"
지역 연계방안 모색한다지만
'구색 맞추기' 전락 우려 시각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 9월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사진=서산시

해미읍성 가톨릭성지화에 200억 원대 예산을 책정하고 '교황방문도시'로서의 도 넘은 홍보정책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일었던 서산시가, 또다시 가톨릭성지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산시 측은 가야산 불교문화 등 지역유산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성지의 지역대표 브랜드화'를 공언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마스터플랜 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7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해미국제성지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화'에 나선다. 서산시에 따르면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추진안은 4개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순교성지와 연계한 해미역사공원 조성, 내포지역 가톨릭성지 · 명소들을 연결한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등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된다.

해당사업은 "해미국제성지를 평화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세계인과 나눌 수 있는 화합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맹정호 시장이 지난 9월 14일 직접 발표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과거 참수형터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순교자 압송로를 복원해 기존 가톨릭순례길에 포함시키는 등 가톨릭신앙에 토대를 둔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해미역사공원은 해미국제성지 앞 가톨릭 박해 당시 참수형터로 알려진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순례길은 내포지역 내 가톨릭명소들을 연계한 코스에 IT기술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결합한 순례길로 추진된다. 특히 순례길은 기존 가톨릭순례길의 종점구간인 세계청년문화센터부터 해미읍성을 거쳐 해미국제성지 내 진둠벙(순교자들이 수장됐다고 알려진 연못)까지 이어지는 1.7km구간으로, 순교자의 압송로를 현대에 맞게 복원하는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미국제성지 선포식은 물론, 세미나를 통한 역사복원과 체험, 성지정비, 홍보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미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미국제성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등록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순교자묘와 진둠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종교편향 논란을 의식한 듯 가야산 불교유산 등 다른 종교와 연계한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협력과 조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가톨릭신앙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색맞추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서산시는 백제문화권으로 불교유산이 산적해 있는 곳으로, 지자체 주도의 과도한 성지화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덮어씌우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산시는 해미읍성뿐 아니라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과 무학대사가 창건한 간월암, 전통사찰인 부석사와 개심사, 보원사지 등 문화유적이 분포돼 있다.

서산지역의 한 사찰 주지스님은 "서산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톨릭성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 과도하게 종교색을 띄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자체가 성지화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며 "'순교'라는 행위가 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종교적 환희심을 주겠지만, 이를 복원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뒤덮을 정도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미국제성지는 1800년대 천주교 박해 당시 132명의 순교자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11월 교황청에 의해 국제성지로 지정됐다.

종단협, 종교편향 대응 위한 '범종단대책위' 결성

종단협, 12월 8일 이사회서 결의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밝혀
'기후위기 대응' 확대로 불교 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교편향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 불교계 각 종단들이 '범종단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대응키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8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5번째 안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종교편향_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_캠페인 관련 논의의 건'을 상정했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기후위기 문제는 물론, 종교편향 등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앞서 진행된 차담을 통해 앞으로 불교계가 이런 사안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입장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님은 "오늘 이사회에서 종교편향과 불교폄훼 사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은 "문체부가 사과를 했지만 종단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의 지속적인 편향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종교편향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종교편향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계종 사회부와 대책위원회가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단협이 연대 여부를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면적인 대응은 다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분리대응을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종교편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큰 사건이 터질 때까지 불교계가 이를 등한시 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불교의 위상과 역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범종단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종단협 소속 종단들이 연대한 '범종단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종단협은 올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거나 중단됐던 사업을 일부 재개할 예정이다. 신년하례법회는 1월 18일 봉행할 예정이며, 2022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AW컨벤션센터에서 진행키로 했다. 송지희 기자

제6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에 도심 스님

원행 스님, 12월8일 임명
만당 스님 등 위원 위촉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제6기 위원장에 도심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심 스님을 종평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직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사진〉

위원에는 종회의원 만당 스님과 지우 스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원행 스님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를 잘 해결해 좋은 쪽으로 봉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런 문제는 추후 대응보다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최근 논란이 된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캐럴 캠페인은 문체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천주교와 개신교 등과 함께 지상파 라디오와 매장 등을 통해 캐럴 재생을 활성화하는 운동으로, 불교계에서는 문체부가 특정 종교 음악을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적 행정이라며 논란이 일었다.

원행 스님은 "최근 7대 종교 대표 중 일부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천주교를 대신해 공식 사과를 했다"며 "불교계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원활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평위원장 도심 스님은 "각종 사안을 세심하세 살피겠다"며 "종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평회위원회 위원에는 당연직으로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이 함께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화종 혜문 스님, 종단협 임원 선임

12월 8일 임원변경의 건 통과
안정적인 대외활동 토대 구축



장기화된 종단 내홍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임원자격에도 논란을 빚었던 법화종이, 현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사진〉의 종단협 이사 선임을 통해 안정적인 대외활동의 토대를 구축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12월 8일 제3차 이사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법화종 총무원장 변경에 따른 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이사는 前 법화종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서 현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으로 최종 변경됐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37명 중 출석 32명 위임 5명으로 성원됐다.

종단협이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그동안 내홍으로 위태로웠던 법화종이 대외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했음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법화종은 상임이사 종단으로 의전서열 12위였으나 前 총무원장의 법정구속 이후 장기화된 내홍으로 지난해 의전서열 29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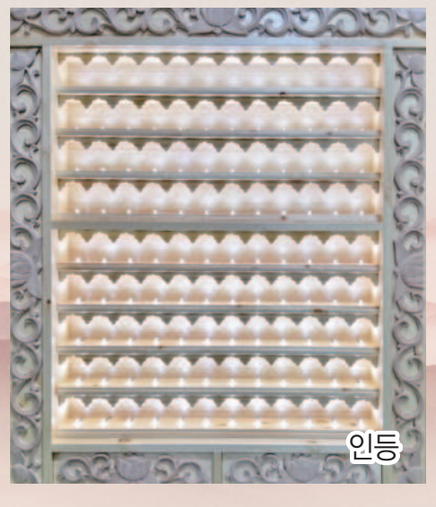
혜문 스님은 임원 선임 이후 인사말을 통해 "현재 종단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총무원장 서리로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법화종 내부 문제로 일부 혼란을 빚은 점에 대해 회원 종단 스님들께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 종단 안정은 물론, 실추된 종단 위상을 회복하고 나아가 종단협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화종 前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은 총무원장 자격논란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단 대표자로서 활동을 일체 보류한다"는 종정교시를 무시한 채 종단협 이사 임명을 신청하는 등 사실상 월권행위로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송지희 기자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30년 축척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 서비스로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수미단 · 닫집

영단

윤장대 · 인등

인등

인등

인등 시공사례

中日템플스테이 부상…韓 시장경쟁 강화를

문화사업단, 12월 9일 정책 연구 세미나 개최

日, 슈쿠보 · 테라하쿠에 지원
中, 불교협 사찰에 예산 투입
"품질관리 · 공공성 강화 통해
템플스테이 '동력'을 만들어야"

제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내년에 운영 2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중국과 일본 방식의 템플스테이가 꼽혔다. 한국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중국과 일본의 템플스테이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템플스테이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된 '2021년도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12월 9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 · 중 · 일 템플스테이 정책을 비교하고 템플스테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심창섭 한국관광학회 사무국장은 일본 · 중국 템플스테이 사례를 조사 발표했다. 심 사무국장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 '미래 일본 관광 비전'을 발표하고 문화재를 보존 우선에서 이해 · 활용으로 전환했다. 일본 방식의 템플스테이는 '슈쿠보(宿房)'라고 불리며, 7만여 곳에서 승려, 참배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슈쿠보의 관광 목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민간컨설팅업체들도 생겨났다. 2018년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는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이 시행되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찰에서 슈쿠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2016년 발표한 '관광 비전'에 따라 성 · 사찰 등을 활용해 고유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 '시로하쿠(成泊) · 테라하쿠(寺泊) 역사자원 활용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엔의 예산이 지원된다.

중국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심 사무국장은 한계점은 있으나 미래 잠재력은 풍부하다고 봤다. 웰니스 관광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불교 뿐 아니라 도교, 태극권 등을 중심으로 숙박형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어서다.

중국형 템플스테이는 중국불교협회 소속 사찰에 예산이 배분돼 개별 사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특히 우타이산(五臺山), 어메이산(峨眉山), 텐타이산(天台山) 등에서 사찰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심창섭 사무국장


전병길 교수

심 사무국장은 "중국은 적극적 종교활동에는 많은 제한이 있어 템플스테이는 현재 한계점이 있으나 전역에 위치한 풍부한 불교문화, 자연경관 등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엄청난 잠재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인바운드 시장에서 한국 템플스테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는 '템플스테이 경쟁력 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 템플스테이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템플스테이가 유 · 무형의 한국불교 전통문화자원으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 일본과 중국의 템플스테이가 부상하고 있어 한국 템플스테이의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템플스테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기회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시장 경쟁적 운영을 위해 운영사찰 평가 시 수익 지표 및 품질관련 지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우수 운영사찰에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운영사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를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 운영사찰들에게는 개방적 사고를 주문했다.

전 교수는 "문화관광목적지로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 관광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지자체가 갖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종교적 편견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원로부의장 원경 대종사 원적

12월 10일 용주사서 영결식 엄수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당 성진 대종사의 영결식이 12월 10일 용주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원경 대종사는 12월 6일 오전 주석처인 평택 만기사에서 원적했다. 세납 81세, 법랍 62세.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총무원장 원행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영결사에서 "대종사는 무생의 세계로 환귀해 시종이 없고 생멸이 없는 적멸의 삶을 이뤘다"며 "여기 모인 대중의 비원을 듣고 우리 곁에 오셔서 불일을 밝히고 조계의 선풍을 드날려 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도사에서 "큰스님의 삶을 반추해보니 우리 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무상법문과 다름이 없다"며 "일생을 금강의 정진력과 가르침으로 살아오신 대종사님이시여, 칠보연못의 연꽃 위에 좌정해 머무시다가 본래 서원에 따라 이 사바에 돌아오셔서 다시금 널리 교화를 드리워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편 1941년 충주에서 박헌영의 아들로 태어난 원경 대종사는 한산 스님을 따라 화엄사 등에서 행자생활을 하며 경전을 익혔다. 1960년 송담 스님을 은사로 불문(佛門)에 들었고 묵묵히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대종사는 중앙종회의원과 청룡사, 신륵사 주지 등을 지내며 종단 발전에 기여했다. 2014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12월 10일 용주사에서 원경대종사 영결식을 엄수했다. 사진제공=조계종

동국대 건학위, 4개 핵심사업 집중 추진

12월 8일 첫 연석 회의 개최해
교육 · 의료 · 지역 건학위 나눠
세부 사업 지정…매월 점검도



동국대 건학위는 12월 8일 제1회 기본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중점추진사업 등을 소개했다.

동국대 건학위(위원장 돈관)는 12월 8일 동국대 본관 5층에서 제1회 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서울 정각원장 진명 스님, 경주 정각원장 철우 스님, 경주 불교문화대학장 혜명 스님, 일산불교병원 법사 능지 스님, 경주병원 법사 혜능 스님, 서울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 경주 불교학부 석길암 교수, 산하학교 수석교법사 이학주 동대부여고 교법사가 참석했다. 또 박기련 건학위 사무국장, 지정학 건학위 사무처장, 이창한 건학위 대외협력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중점추진 사업이 소개됐다. 건학이념구현사업은 크게 △교육 △의료 △지역 △글로벌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건학위는 이날 건학위 기본기관장들의 연석회의 정례화 등도 의결했다.

돈관 스님은 "매주 목요일 고문 스님을 모시고 봉은사 등에서 보고를 하고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건학위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힘이 난다"며 "대학 평가에서 9위를 기록하는 등 모든 분들의 역할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기본기관들은 건학위 활동의 주요한 축으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4대 종단,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12월 6일 국회 앞 긴급회견
"법제정이 공존사회 출발점"



4대종단 등은 12월 6일 국회본관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4대종단 · 정의당 · 시민사회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월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이 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 원불교 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 심상정 정의당 20대 대선후보, 이종걸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장 등이 동참했다.

동참자들은 국민 80%의 지지를 얻고 있고, 국민동의 10만 명을 달성한 상황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14년째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공존의 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평등의 이로움을 알고 널리 알려서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가할 권리를 가지는 안전하고 희망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20대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나라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인권선진국으로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행복바라미 문화축전’ 온라인서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로 12일 비대면 영상행사 진행

BBS, BTN 유튜브 녹화영상 공개
올해 5천만 원 모금, 소외이웃 지원
주윤식 회장 “사회 공헌 적극 동참”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의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공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통문화 대중화 및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온라인으로 문을 열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12월 12일 불교방송, BTN불교TV 유튜브를 통해 ‘2021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을 진행했다.

날마다좋은날은 12월 7일 전법회관에서 개막식 사전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방식으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진행하게 된 사유와 온라인 전개 의미 등을 설명했다.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주제로 진행됐다. 12일 온라인 개막식 1부는 행복바라미 의미를 샌드아트로 전하는 오프닝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영상을 통해 주윤식 이사장 환영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치사, 포교원장 범해 스님 격려사,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 손병선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이사장 축사가 이어졌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행복바라미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개막식 2부에서는 올해 10월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된 행복바라미 문화행사가 소개됐다. 2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보시 모연을 통한 나눔실천을 알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전국으로 확산된 보시와 나눔의 범국민 축제”라며 연말 연시 불자들의 활발한 자비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2부에서는 소을소리단의 전통국악 공연과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타악 공연, 국민멘토 방우정 교수의 ‘나눔 소통 화합’ 주제 힐링콘서트도 진행됐다.

주윤식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올해 교구신도회와 지역사찰이 중심이 돼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행복바라미는 이제 불교를 대표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소외이웃을 향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행복바라미 모연액은 전액 모연된 지역의 소외이웃을 위해 회향된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이날 온라인 개막식과 함께 전국 300여 사찰에서 모금활동으로 전개된다.

현재 행복바라미 모연캠페인에서는 약 5000여 만원이 모금됐으며, 날마다좋은날 측은 2022년 2월 수혜자를 선별해 회향할 계획이다.

전국 53개 교정수용자 신심 담았다

중앙신도회, 〈불교성전〉 교정기관 손글씨 수상작 발표

최우수 부산교도소 여등 불자作
불교성전 3장 보살의길 필사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여등 불자의 손글씨.

전국 53개 교정교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과 마음으로 읽는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에 부산교도소 여등(법명) 불자의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김행규)가 주관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와 동시에 불교성전을 통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계획됐다. 공모전은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개 교정시설로부터 119개 작품이 접수됐다.

중앙신도회는 11월 30일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5점, 입선 10점 등 총 17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교도소 여등 불자는 불교성전 제3장 보살의 길, 7절 ‘세상을 밝히는 지혜’ 중 일부를 붉은색 붓펜으로 필사했다. 마지막 장까지 흔들림 없는 정갈한 필체 속에서 엄청난 정성과 신심이 느껴진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불교성전 보급화와 동안거 비대면 수행정진을 위해 ‘2021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을 불교성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심 증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희망 선물’입니다”

생명나눔, 영등포복지관서 캠페인
동참자들 “기증 약속 꼭 지키겠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9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 명의 인체조직기증은 10명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겨울 한파가 몰려온 12월 9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 1층 로비에 추위를 가르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의 의미와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나선 것.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테이블 2개를 설치해 부스를 만들고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증희망등록 신청 감소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장기기증 대기 환자는 4만 명에 달하며, 하루 8명이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기관과 협력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키로 하고 첫 홍보지로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았다.

“사후 얼마 이내에 기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희망등록을 하고 나서 가족들의 반대하면 취소할 수도 있나요?”

홍보부스를 지나던 종사자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장기기증에 대해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장기기증’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생명나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후에는 자발적인 희망등록이 이어졌다. 장기기증은 대부분 뇌사상태일 때 가능하므로 실제 기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것에 의미가 크다는 설명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복지관에서 가장 먼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김지웅 미래경영팀 과장은 “사후 화장이나 매장으로 없어질 몸의 일부가 생명이 간절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큰 망설임 없이 희망등록을 했다“며 “이왕이면 건강한 신체를 기증하는 것이 좋은 만큼, 술과 담배를 줄이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으며 말했다.

기증은 희망자가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 신장과 간장, 췌장 등 장기 등과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조직, 그리고 안구(각막)로 나뉜다.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것도 희망자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희망등록 시에는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각 지자체별로 보건소 진료비와 주차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KEB하나은행 ‘바보의 나눔적금’ 가입시 연 0.5%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동국대 일산병원 이용시 진료비(비급여)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실 기증 시에는 장제비와 진료비 총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선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최종환 관장은 “장기기증 희망동록은 이식 대기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캠페인 장소로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지목했다.

이도경 장기사업부장은 “올해 말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관을 중심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해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모아갈 것”이라며 “이식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가족의 반대도 만만찮아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높지만 의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7일, 소외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 2 · 3동 주민센터에서 ‘제8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를 개최하고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총 200개구에 라면 6000개와 김치 1600kg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달된 물품은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정 나누기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수지와 팬클럽 ‘배꽃마을’에서 기부한 후원금으로 진행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예비역 군승, 포교 활동 확대 노력”

예비역법사단, 12월 3일 총회 및 숭년회

30여 군포교 관계자 참석
신임단장 원명 스님 선출


예비역법사단은 총회 및 송년법회를 열었다.

예비역법사단(단장 법일)은 12월 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육해공군 예비역 선임법사 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총회 및 송년회에는 법사단장 법일 스님(이양길 법사)을 비롯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등 스님들과 1기 군법사인 권기종 예비역 선임법사를 비롯한 30여 예비역 법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단장 법일 스님은 “군종활동을 함께 해 온 도반이자 동행자로서 이번 송년 행사를 통해 예비역법사단의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현역 법사 시절의 기쁨과 추억을 바탕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력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이날 예비역 군법사들을 조직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일 스님은 격려사에서 “470여 명에 달하는 예비역 군법사들이 있지만 이를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예비역 군법사이 지속해서 군포교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기종 예비역 선임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군법당 중 군승이 없는 법당이 많다. 외부에서 법사가 법회를 진행하는데 예비역 군법사들도 이런 법당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여 전법 포교를 활성화하자”고 당부했다.

예비역법사단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과 1기 군법사를 대표해 권기종 선임법사 등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송년회에 이어 총회에서는 해군 군법사 출신인 영주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송병욱 법사)이 차기 예비역법사단장으로 추대됐다.

원명 스님은 “새롭게 종단에서 군법사들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예비역법사단도 친목 수준을 넘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년회에는 지난 10월 11일 입적한 1기 군법사를 지낸 김봉식 예비역 군법사의 아들 김진환 동국대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장이 참여해 군종교구장으로 지낸 장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총동문회장에 변대용 본부장

12월 4일 임시 총회서 선출
대불련 공동체 불사추진해
캠퍼스포교 협력사업 진행



대불련총동문회 제30대 회장에 변대용(동국대 80학번, 사진) 불교TV 붓다회 본부장이 선출됐다.

대불련총동문회는 12월 4일 선학원 지하3층 만해홀에서 임시총회 및 송년법회를 열고 단독출마한 변대용 회장을 제30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했다. 변 회장은 20년차 대불련 중앙본부 조직부장을 지냈고, 불교신문 기자, BTN불교TV 보도국장, 한국불교기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BTN불교TV 붓다회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변 회장은 “총동문회장 출마는 대단한 원력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다. 땀과 열정을 바쳤던 대불련 공동체를 지키고 역량을 결집하여 후배들을 위해 회향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또 2023년 대불련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불련과 함께하는 대불련 공동체 불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변 회장은 끝으로 “재학생 없는 동문회는 존재할 수 없다. 대불련총동문회는 캠퍼스 포교에 나서 선후배가 함께 미래불교를 디자인하고, 포교불사를 실천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감사로 신석봉(전남대 74학번), 정성균(전북대 79학번), 노태훈(성균관대 81학번) 씨도 감사로 선출됐다.

송년법회에서는 이종수 순천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의 ‘대학생 포교의 발상 전환’ 특강도 진행됐다. 또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출신 이아진 씨의 판소리 공연 ‘고난의 칼날에 서라’도 축하무대로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인도 네팔 순례기’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향번역상엔 ‘인식론 평석’
조계종, 12월 15일 시상식

각전 스님의 저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올해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제18회 불교출판문화상에 대상 〈인도 네팔 순례기〉를 비롯해 10권을 선정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대상작 〈인도 네팔 순례기〉는 선방에서 수행하는 각전 스님이 해제 철에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다녀온 인도 네팔의 성지 순례, 그 깨달음의 여정을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담았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각전 스님은 39회 행정고시 합격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했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상에는 〈엄마랑 아이좋아〉(덕원 스님 지음, 박혜상 그림/ 불교신문사)와 〈붓다 연대기〉(이학종 지음/ 불광출판사)가 선정됐다. 또한 수향번역상에는 〈인식론 평석〉(다르마키르티 지음, 권서용 옮김/ 그린비) 붓다북학술상에 〈조선 불교사상사〉(김용태 지음/ 성균관대출판부)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한 보덕전법상에는 〈오르고 거닐며 느리게 보는 절집의 미학〉(김봉규 지음, 사진/ 담앤북스)가 이름을 올렸다.

입선에는 〈봉려관,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다〉(혜달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심검당 살구꽃〉(최명숙 지음/ 도반),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이윤옥 지음/ 운주사), 〈중심〉(법인 스님 지음/ 김영사)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7일 ‘2021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를 개최하고 자비나눔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회복지와 자비나눔으로 세상에 행복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복지 현장 곳곳을 누비는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자비나눔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21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를 개최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불교사회복지 발전 의지를 다졌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 국회의장 공로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등 29명과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은호 기자

수미산 원정대

상월결사 정신 계승…불연맺기 활성화



수미산원정대는 12월 9일 봉은사 향적원에서 1기 동문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증명인 회주 자승 스님(사진 앞열 왼쪽 두 번째)을 중심으로 지도법사를 맡은 단장 원명 스님(사진 앞열 왼쪽 첫 번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사진 앞열 왼쪽 세 번째)과 동문회원들의 모습.

수미산원정대 1기, 봉은사서 동문회 출범

12월 9일 봉은사 향적원에서 출범식 및 임원 위촉 이어가

1기 40여명 참여…동문회장 육현표 분기별 1회 성지순례 및 초청강의 단장 원명 스님 "상월정신 생활로"



자승 스님은 동문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육현표 회장이 차걸이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4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봉은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수미산원정대의 첫 동문회가 창설됐다. 수미산원정대(회주 자승, 단장 원명)는 12월 9일 봉은사 향적원에서 졸업생들의 중심체가 될 1기 동문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단장 원명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육현표 1기 동문회장 등 수미산원정대 1기 4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회장단 임명장 수여, 임원진 임명장 수여, 동문회 발전기금 전달식, 수미산원정대 단장 원명 스님 축사, 육현표 동문회장 인사말, 운영진 및 회칙 소개, 민세진 교류국장의 주요사업 소개, 개인별 법명 및 졸업앨범 선물 등으로 진행됐다.

수미산원정대 1기 동문회는 회주 자승 스님을 증명으로 단장 원명 스님이 지도법사로 이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육현표 1기 동문회장을 비롯해 김기유, 김동건, 박범훈, 주윤식 고문과 박현숙, 안창섭, 이선재, 이태경, 최은주 부회장, 곽상언, 박기련 감사, 황순일 사무총장, 김용현 포교국장, 민세진 교류국장 등을 위촉했다.

단장 원명 스님은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계승하는 가치관을 갖고 봉은사에서 함께 신행생활을 해야 한다. 다른 동문회와 다르게 신행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신행생활을 통해 수미산원정대 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 불교의 가치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천하는 불교, 불자로서 함께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육현표 동문회장은 출범식에서 "1기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 걸음걸음에 2기와 3기가 따르게 될 것"이라며 "사업계획을 실천으로 이어갈 때 의미를 지닌다. 동문들이 함께 자주 모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단장 원명 스님은 원정대원들에게 법명이 새겨진 차걸이와 1기 활동을 기록한 앨범을 선물로 각각 전달했다. 이어 동문회칙 등이 발표됐다.

1기 대원인 차승재 동국대 교수는 "부부가 함께하는 신행생활을 통해 동문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학교법인 은구학원 김기원 이사는 "동문들과 같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 시국에 어려운 공부였지만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수미산원정대 발전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미산원정대 1기 동문회는 동문회 사업으로 △연말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봉은사 신도로 주요행사 참여 △분기별 1회 불교인사 초청강의 등 모임 △분기별 1회 사찰 순례 △운동 · 등산 등 동문회 교류활동 △입학식 · 졸업식 참여 등 수미산원정대 후원 △상월선원 후원 및 행사 참여 등을 공개했다.



수미산원정대는 12월 5일 교육 과정 일환으로 보은 법주사에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 형식의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순례에는 60여 불자들이 참여해 불심을 키우고, 불교중흥을 발원했다.

수미산원정대 2기, 법주사서 성지순례

12월 5일, 2기 교육 일환으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 진행

자승 스님 "자신감이 신앙 근원" 새벽예불, 108배하며 불심 키워 초심불자, 이웃종교인 호평 눈길



5일 108배를 진행하는 2기 대원들.



조별 모임을 통해 불자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새벽예불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법주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정신을 불교 인연맺기로 확장하고 있는 수미산원정대가 2기 성지순례를 봉행했다. 수미산원정대(단장 원명, 봉은사 주지)는 12월 4일과 5일 보은 법주사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성지순례에는 2기 51명을 비롯해 1기 3명과 관계자 등 총 64명이 참여했다. 수미산원정대는 대부분이 불교초심자이거나 무종교 · 이웃종교인들로, 이들은 성지순례에서 사찰 예절과 절하는 법을 배웠고 새벽예불, 108배, 참선, 사찰탐방을 통해 불심을 키웠다.

수미산원정대 2기 성지순례 둘째날인 5일에는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는 법문을 했다. 이날 법문은 성지순례 기간 배포된 공양기도문에 대한 얘기부터 진행됐다. 상월결사에서는 지난 순례 때부터 대중화된 공양기도문을 만들어 보급을 시작했다.

자승 스님은 "사찰에서 공양할 때만 기도문을 외지 마시고, 아이들 · 가족이 함께 바깥에 식당에서 공양하실 때에도 기도문을 외시라"며 "믿음의 근간은 내 종교에 대한 자신감으로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양발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웃종교인들은 자신있게 자신이 믿는 종교를 드러내지만, 불교는 과하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한 수미산원정대 2기 여러분들도 한국 불자로서 대표한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며 "자신이 택한 수미산원정대인만큼 부처님의 지혜가 삶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1박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봉은사에서의 교육과 달리 템플스테이를 거치며 수미산원정대 2기는 불교에 대한 신심과 도반의 정을 쌓을 수 있었다.

양형진 은석초 교장은 "이번 성지순례는 불자로서 더욱 정진하여 노력하라는 의미같다"며 "수미산원정대에서 은석초에서 학부모위원회 활동 등을 열심히 하신 분을 만나는 등 예전의 인연과 새 인연을 만나 더욱 신심이 난다"고 말했다.

수미산원정대 2기에는 초심불자와 이웃종교인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불교를 접한 소감도 남달랐다.

가톨릭 신자인 정태진 평택대 교수는 "법주사에 온 첫날 '스님의 아멘' 이라는 다큐를 보았는데, 여기서 나온 자승 스님이 생각하는 이웃 종교와의 관계, 상호존중이라는 측면이 크게 마음이 와닿았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까지 많이 보여주신 것 같다. 불교를 알게 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에 3기에는 학교 제자들도 입학을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지순례는 법주사 부주지 각운 스님의 사찰 안내와 함께 세조길 포행, 주지 정도 스님의 회향인사로 마무리 됐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포교 선도 '쿠무다' 새로운 도약

12월 9일, 명상문화센터 이전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 수용위해
기존건물 맞은편 지하2층 지상8층
콘서트홀 법당 무대에 석가모니불
장학재단 명경문화재단 출범식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쿠무다 명상문화센터'가 12월 9일 이전 개원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개원을 축하하며 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불교문화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쿠무다 명상문화센터'가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문화예술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이하 쿠무다)는 12월 9일 기존 건물 맞은편(부산 해운대구)에 신축한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 콘서트 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쿠무다는 현대적인 카페 공간에서 불교복합문화를 선보이는 파격적인 행보로 눈길을 모았다. 이번 불사는 좀 더 다채로운 공연과 불교문화를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공간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이전 개원했다. 새롭게 문을 연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이며 총면적 2970㎡이다.

신축 쿠무다 명상문화센터에서는 콘서트홀 법당 무대에 모신 석가모니부처님 입상과 하늘정원의 관세음보살상, 서핑하는 나한 등 고전적인 미와 톡톡 튀는 현대적인 미를 동시에 자랑하는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이뿐 아니라 송정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명상공간과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채식요리 교육관 등 복합문화 공간도 새롭게 대중들을 만난다.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 화엄회 회장 상화 스님,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신명환 대운사 신도회장, 차재돈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기획국장 등 전국의 승 · 재가 내빈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개원법회는 △삼귀의 △환영사 △경과보고 △인사말씀 △치사 △격려사 △이사 위촉패 전달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장학금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무대로 쿠무다 챔버 뮤직 및 LMB싱어즈 등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참가한 내빈들의 법명과 이름을 부르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오늘이 시작이란 마음으로 수행자로서 여법하게 정진할 것이다"며 "불교문화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발원에서 시작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다. 오늘 이 불사가 완공하기 까지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큰일을 해내신 주석 스님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 오늘 아름다운 부산 앞바다 송정의 중심에 찬란한 하얀 연꽃이 피었다. 새로운 불교문화의 중흥을 선도할 쿠무다 이전불사의 회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구시대적인 불교적 사고로는 이런 불교포교는 꿈도 꾸지 못한다. 불교를 젊게 하고 신세대적으로 이뤄낸 지극한 신심과 원력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치사했다.

이 외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과,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전국비구회 회장 본각 스님의 승가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의 축사도 진행됐다.

쿠무다는 또한 새로운 문화포교의 도약을 위해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유연선원 주지 희상 스님 등 12명의 이사들을 임명했으며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쿠무다는 동국대에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 부산대에 장학금 1억 원 기부협약, 대동대에 5000만 원 협약, 영산대에 5000만 원 장학금 협약 등 문화예술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쿠무다는 이날 개원법회에서 장학재단 명경문화재단의 출범도 알렸다. 명경문화재단의 '명경'은 이사장 주석 스님의 법호이다. 명경문화재단은 동국대에 장학금 3억 원을 약정하고 매년 3000만 원을 10년 동안 전달 할 것을 밝혔다.

쿠무다의 발전을 위한 후원도 이어졌다. 부산 비구니 자비봉사 모임 화엄회가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참여 불자들은 쿠무다 콘서트홀 좌석기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쿠무다는 현재 불사 후원을 위한 좌석기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콘서트홀은 클래식부터 연극 등 모든 분야의 공연이 가능하며 220석 규모이다. 기부금액은 108만 원이며 기부자의 명패가 설치될 예정이다.

화엄경 진수 전하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법회동안 30명 법사스님 릴레이
〈화엄경〉 39품 내용 상세 법문
10만 영가 위해 천도 및 법성게


영축총림 통도사가 12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2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통도사는 매년 화엄산림법회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전하고 있다. 입재일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 30명의 법사 스님들이 릴레이로 〈화엄경〉 39품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법문한다.

입재법회는 불공에 이어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과 주지 현문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영가 시식 순으로 마무리됐다.

방장 성파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개산조인 자장율사가 '화엄의 대가'이며 통도사 도량 구조와 화엄법석으로 그 정신을 잇고 있음을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자장율사가 창건한 통도사를 계율 근본 도량으로 알고 있지만 자장율사는 중국 당나라에서 화엄의 대가로서 설법을 하고 국빈으로 모셔졌다. 통도사 화엄법회는 한국전쟁 등 난리 속에 잠시 멈춘 적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그 정신을 이어 법회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도사 도량도 화엄의 가르침을 보여준다. 가람 배치만 하더라도 화엄의 9품 연대를 보여준다. 전각에 참배만 하더라도 억겁에 지은 죄가 눈 녹듯이 녹을 것이다"고 설법했다.

〈삼국유사 4권〉에는 "자장율사는 태어난 집을 원녕사(元寧寺)로 고치고 낙성회를 열었으며 〈화엄경〉 1만 게송을 강의하자, 52명의 여인이 감동하여 몸을 현세에 드러내었고 강의를 들었다. 제자들에게 그들의 수만큼 나무를 심게 하여 그 기이한 자취를 나타내게 하고 그 나무를 지식수(知識樹)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자장율사는 중국의 화엄5조(華嚴5祖) 중 초조인 두순 스님과 동시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광명전을 건립해 화엄사상을 드러냈음을 엿볼 수 있다.

통도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법회 안내로 안전한 법석을 진행한다. 통도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온 · 오프라인 동시 법회를 실시한다. 설법전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정원 50%만 입장이 가능하다. 현장 동참이 어려운 불자들은 '유튜브 통도사 TV'와 네이버 밴드 '화엄의 숲'을 통해 실시간 방송 및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불자들에게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으며, 법회와 더불어 〈화엄경〉 독송수행으로 성장할 것을 독려했다. 현문 스님은 "코로나 역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 수칙에 따라 백신접종과 체온을 확인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바란다"며 "한 달 동안 진행될 법회 기간 동안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사중의 모든 스님들과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석 대중들은 법회를 통해 수행하고 경전을 읽으며, 법회를 정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기간에는 10만여 개의 위패를 법당에 모신다. 전국의 불자들이 영가들도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매주 토요일 법성게 기도와 일요일에 천도재를 봉행해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회향일에는 영가 위패 소대의식이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영 대성암, 사랑의 김장나눔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이 12월 7일 경내에서 제7회 사랑의 김장나눔을 진행했다.〈사진〉

대성암은 매년 인근 지역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대성암 신도가 직접 재배한 배추 250포기로 담근 김장김치 70박스를 전달했으며, 김장 봉사에는 대성암 신도회가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승속 함께한 해인사 화재진압 소방훈련

합천소방서와 산불진압 훈련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12월 7일 해인사 수미정상탑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했다.〈사진〉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단장 고재호)과 합동으로 진행한 소방훈련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현응 스님, 총무 진각 스님, 국장 스님들과 선원 및 승가대학 스님, 종무원과 해인사 의용소방대 20여 명이 참여했다. 합천소방서에서는 소방차 2대를 동원했으며, 산불이 사찰로 내려오는 것을 가정해 불길을 막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현응 스님은 "소방훈련에 참여한 합천소방서와 의용소방서, 마을주민과 신도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소방훈련에서 미흡한 부분을 검토해 발화를 즉시 신고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유사시 성보 이운과 관광객 대피 등을 다음 훈련에서 보완하자"고 당부했다.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소방훈련 총평에서 "해인사는 우리나라 최고 화재 진압 체계를 갖추었다. 학인 때 소화전 사용을 배웠는데, 주지를 살 때 법당 인근에 산불이 나 그때 배운 지식을 활용했다"며 "해인사 스님들이 조직적으로 소방훈련을 잘 받은 것 같다"고 평했다.

고재호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십여 년 전 거창소방서 합천소방파출소가 독립적인 합천소방서로 된 것은 팔만대장경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라며 "스님들께서 보이지 않게 잘 관리를 해오셨다. 이번에 합동 훈련으로 초기 화재진압 등 문화유산 보존에 더욱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뇨엔, 인재불사 위한 나눔 이어가

동명대 · 동국대에 장학금 총 2000만 원 전달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 이하 신뇨엔)이 인재불사를 위한 이타행을 이어 가고 있다. 신뇨엔은 12월 3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동명대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장학금은 동명대 학생들의 해외 탐방 지원금 및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 신뇨엔 부산정사 영준 국원, 장재진 동명대 교수와 동명대 불교동아리 학생 및 글로벌컨텐츠학과 학생 15명이 참석했다.

한편, 신뇨엔은 지난 11월 30일 동국대를 방문해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정경 국원과 곽채기 교무부총장 등이 동참했다. 신뇨엔은 3년 연속 동국대에 로터스관 건립 및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전달해 동국대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해 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영광사, 자비의 쌀 · 장학금 전달

영도구청에 백미 600kg 장학금 100만원



부산 영도 영광사(주지 여공)가 12월 2일 영도구청에서 자비의 쌀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영광사는 이날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백미20kg 30포대 600kg과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겨울철과 송년을 맞아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백미는 부산 영도 신선동에 거주하는 소외이웃에게 전달되며 장학금은 영도구청에서 출현한 장학회에 전달해 학생들에게 회향된다.

전달한 백미와 장학금은 영광사 신도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전달식에는 주지 여공 스님, 김철훈 영도구청장, 박종이 영광사 신도회장 등 영광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영광사는 금정총림 범어사 말사이며 이번 해 3월 여공 스님이 주지로 취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천불정사, 성금 및 백미 전달

금정구청서 전달식 개최



인재불사도량 부산 금정구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12월 6일 금정구청에서 연말 이웃 사랑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천불정사는 이날 성금 300만 원과 백미 1000kg을 후원했다. 전달한 성금 및 백미는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천불정사는 부산대 고시준비생을 위한 공간 고담정을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행정고시 합격생이 주지 고담 스님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올해는 행정고시 2명과 기술고시 1명이 합격했다. 아울러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주지 고담 스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해 금정구에서 주최한 제31회 향토봉사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일본군 위안부 추모마당 개최

생명평화제전 공동주관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12월 4일 홍법사 경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본군 위안부 해원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생명평화제전 추진본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픈 역사로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넋을 천도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공연은 온새미풍물패의 길놀이 · 열림판굿을 시작으로 천도재가 이어졌으며 샌드아트, 시, 노래, 음악, 춤 등으로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심산 스님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참혹했던 아픈 역사를 함께 아파하며, 전쟁과 폭력으로 인권의 존엄이 말살당하는 참담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길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 신흥사, 선열당 불사 회향

12월 4일 현판 제막식 개최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가 선열당 불사를 마치고 12월 4일 경내에서 선열당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불자들의 쉼터이자 공양간으로 마련된 선열당은 기존 1층 건물에 한 개 층을 신축해 올린 전통 기와 목조 건물 형태로 지어졌다.

선열당은 공양을 통해 참된 도를 성취하라는 의미로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내린 현판이다.

주지 종현 스님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이 수행이다. 그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다"며 "음식을 약으로 알아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고 더욱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신흥사는 매년 4월 23일 추모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산사음악회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낙산사 무산복지재단, 강추위 녹인 연탄나눔

12월 4일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발대식

양양지역 소외계층 259세대
총 62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9년 간 2844세대에 자비나눔

양양=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 같이 나이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더 춥다고 해서 은근히 걱정했는데, 잊지 않고 이렇게 연탄과 선물을 직접 전해줘 올 겨울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스님과 복지재단 분들께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감사 표시를 해야 할지"

"할머니 늘 건강하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내년에도 또 올게요."

12월 4일 오후 3시 무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미 스님과 손정숙 할머니(87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는 집마당서 손을 꼭 잡고 서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나눴다.

양양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매년 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온정 가득한 '사랑의 연탄' 을 집집마다 현장으로 직접 배달하는 등 자비 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은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50여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양양군 6개 읍면지역의 저소득 259세대 중 184세대에 각 연탄 200장씩 총 3만 6800장과 식품꾸러미 184박스, 쌀 1840kg을 전달하고, 저소득 난방가구 72세대에는 난방유 각 153리터, 식품꾸러미 72박스, 쌀 720kg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화된 3가구 세대에는 연탄보일러도 교체해 줄 예정이다. 집계를 해보면 259가구에 연탄 3만 6800장과 난방유 1만 996리터,식품꾸러미 256박스, 쌀 2590kg 등의 전달과 3가구 연탄보일러 교체 등 총 6200만원 상당을 지원하게 된다.


12월 4일 양양군 서면 장승리 손정숙 할머니 집서 무산복지재단 대표 수미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낙산사(주지 금곡정념)와 무산복지재단(대표이사 수미스님)은 지난 2012년 첫 연탄나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844세대에 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연탄과 난방유 등을 지원하며 9년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이 부처님' 이라고 생전에 강조한 故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를 불국 정토로 구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은 12월 4일 오후 2시 양양군노인복지관 앞 마당서 무산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수미 스님과 김진하 양양군수, 김의성 양양군의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미 스님은 "낙산사 주지 금곡 정념스님께서는 평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함께 나누고 돕는다면 그 어려움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오늘 이 연탄 나눔 행사도 단순히 연탄 한 장 나눔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전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행사 막바지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후원을 위해 사용되는 저금통을 커다란 통에 넣는 행사도 펼쳐졌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수미 스님과 지봉 스님이 10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양양군 서면 장승리로 이동해 독거노인 이웃들에게 연탄과 식품꾸러미, 쌀을 전달하며 이들의 겨울나기를 도왔다.

연탄을 전달받은 정정자 할머니(83)는 "코로나로 사찰도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렇게 꾸준히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위로 물품을 보내주신 금곡스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항상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자원봉사자를 자청한 김진호 씨(양양읍)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날씨도 춥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 난방 연료인 연탄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늘 이 연탄나눔은 더 뜻 깊다고 생각한다. 많이 힘들지만 어르신들께서 올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낙산사 무산복지재단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는 1318 무산지역아동센터 학생들, 가족봉사단, 낙산사 신도회 등 150여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특히 무산복지재단의 자비나눔 실천은 지역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불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적극 참여해 함께 마음을 전함으로써 양양지역 대표적인 자비동체 실현 나눔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태화문화진흥원, 태화사 조명 학술대회 개최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사리탑' 주제
12월 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진행

(사)태화문화진흥원(원장 산옹)이 12월 3일 울산 태화사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사리탑' 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통도사 불교미술사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사)태화문화진흥원 개원을 기념해 열렸다.

학술대회에는 (사)태화문화진흥원 이사장 겸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해남사 해원 스님, 통도사박물관장 송천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백련사 천도 스님 외 지역스님들과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장수완 울산시부시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태화문화진흥원이 12월 3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참석 내빈들이 태화사 조명을 서원하고 있다.

대회는 1부 △박태원(영산대 화쟁연구소 교수)의 '신라시대 울산불교'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남무희(국민대)의 자장과 울산 태화사의 창건 △홍병화(건축사무소 상상재)의 태화사지 위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대한(국립농업박물관)의 십이지사리탑의 양식과 제작시기 △한욱빈(한국건축안전센터)의 십이지사리탑의 역정과 활용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이사장 산옹 스님은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사리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준비했다. 경주에 황룡사가 있고 양산에는 통도사가 있듯이 울산에는 태화사가 있다. 자장율사가 황룡사를 중창하고 태화사를 짓고 통도사를 창건했다"며 "태화교, 태화강, 태화로, 태화교회가 있고 태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정작 태화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스님은 "태화사지와 함께 천문사지, 운흥사지, 간월산, 청량산 등 많은 이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모르고 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차츰 문화를 찾고 발굴하여 젊은 세대에 이를 알려가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장수완 울산시행정부시장은 "태화사를 찾아보자는 스님의 말씀은 바로 울산지역 역사의 서사시를 만드는 과정" 이라며 "태화사 위치를 조명하여 하나씩 자료를 취합해 다시 태화사를 재건한다면 울산 문화를 새롭게 융성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표충사는 12월 3일 밀양시청에서 향사 의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명대사 향사 의례, 현대화 작업 필요"

표충사, 12월 3일 역사 전승 세미나 개최

호국성지 표충사(주지 진각)는 12월 3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표충사의 역사문화 전승 재조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호국대성 사명대사 향사의례의 역사 문화적 전승과 보존' 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을 비롯해 용궁사 정무 스님, 부은사 지원 스님 외 지역스님들과 석길암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박성재 밀양시장, 황걸연 밀양의회의장, 손정태 밀양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진각 스님은 환영사로 "제약산 기상이 느껴지는 밀양에서 호국정신을 발전 계승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석길암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은 "사명대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보존하고 기리기 위한 작업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2021활동보고서 발간

12월 2일에는 차상위 계층에 온수매트 긴급지원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2021년 활동을 담은 보고서가 간행됐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 한 해를 보냈지만 광주불교연합회의 다양한 사업과 자료가 정리됐다.

전체 70쪽에 이르는 '2021광주불교연합회 활동보고서' 에는 2014년부터 활동연혁과 올해 나눔사업, 불교사업, 문화사업, 특별위원회 및 산하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자세한 설명과 사진 등이 실렸다.

활동연혁에는 지난 1년간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안건 등이 수록되었다. 이어 올해 봉축행사를 자세히 소개한 불교사업, 사)빛고을나눔나무가 전담하는 나눔사업의 승보공양, 국내외 어린이청소년지원사업, 불교뱅크 사업 등 1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진행한 나눔행사를 정리했다.

도성 스님은 "지역의 사암연합체가 매년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자로 만



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여해 주신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참여해 주신 광주지역 불교대중에게 감사드린다" 고 발행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와 함께 12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청장 김삼호), 3일 북구청(청장 문인)을 방문해 지역 내 차상위 계층인 독거어르신들에게 겨울철 난방 온수매트를 긴급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중현 스님을 비롯해 북구지역 동현스님(신광사 주지), 해청스님(원효사 주지), 정현스님(청빈암 주지), 눌지 스님(호국관음사 주지) 등이 참여해 추운 겨울을 앞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군건강가정 다문화 자조 모임

구례군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는 최근 2021년 결혼이민자 나라별 자조모임(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을 진행했다.

자조모임은 같은 나라 이민자끼리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 정착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불안과 사회, 가정 적응에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진행한 자조모임은 1회~6회 퀼트 부엉이 열쇠고리, LED 무드등, 7회~9회 유기농 우리 가족 피자 만들기 등



총 9회에 걸쳐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센터 상담전문가와 자녀 양육태도(PAT) 검사 통해 올바른 부모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또 자녀 학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관음사 관음보살 보호각 상량식 봉행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는 12월 4일 보물1842호 목조관음보살입상 보호각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는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주영호 신도회장, 안귀옥 ㈜금우 회장 등 공사관계자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덕림 스님은 인사말에서 "관음사의 보물 목조 관세음보살상 보호각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을 협시불로 봉안할 계획이다"며 "내년 봄쯤에는 건물을 완공하고 내부공사를 거쳐 10월이면 여법한 법당을 준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전진대회개최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김용수)이 올 한해 포교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12월 4일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 큰 법당에서 열린 이날 포교전진대회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포교원 사무국장 현주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제환 스님, 윤중근 포교사단 부단장 등 내빈과 포교사들이 참석했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배운 것만큼 전해주고 포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광사, 소원우체통 어린이 선물 전달

광주 최초 비구니 수행도량 신광사(주지 동현)와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2월 8일 광주 서구청(청장 서대석)을 방문해 양3동에 거주하는 아동 4명의 소원우체통에 담긴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소원우체통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을 구매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동현 스님은 이날 100여만 원의 기금으로 통해 4명의 아이들에게 자전거, 전자사전, 패딩, 영어교재, 도너츠 음식 등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국 노동자들 돕는 日베트남사찰

대은사, 코로나19 이후 활동범위 더 넓어져

박영빈 객원기자

해외서 자국 스님들이 운영하는 사찰이 있는 것을 알면 큰 위안 받을 때가 있다. 11월 30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일본의 베트남 사찰 '대은사(大恩寺)'와 주지인 틱담치 스님을 특별 보도했다.

도쿄 근교의 사이타마현(埼玉縣) 혼조지(本庄市)에 소재한 베트남 불교사찰 '대은사(大恩寺)'. 2018년에 창건된 이곳은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현지에서 베트남 불자들이 마음을 달래는 신행 중심지다. 일본 전국에 산재한 베트남 불교사찰과 법당은 총 10곳으로, 대은사는 주지 스님을 비롯해 베트남 대중들이 모여 정진하는 도량이다.

주지인 틱담치 스님은 2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온 비구니 스님으로 '재일 베트남 불교신자회' 회장을 맡고 있다. 7세에 동진 출가하여 호치민에 있는 사찰에서 정진 중, 2001년 불교학 연구를 위해 일본에 유학 온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그러던 중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들을 돕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구호활동을 시작하며 대은사를 창건하게 됐다.

그동안 대은사는 단순한 베트남 사찰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찾기 힘들거나,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탈출한 이주 노동

2018년 창건후 신행중심지
재일베트남 불자들 운집해
상담·처우개선 등 앞장서

자들이 몸을 의탁하는 쉼터로도 활용되어 왔다.

틱담치 스님은 "코로나 19 확산 전에도 20인 정도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팬데믹 이후 한때 70인 정도의 노동자들을 수용하기도 했다"며 현황을 소개했다. 대은사 측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식료품과 생필품 제공, 혹은 신원보증이나 임시보호 등 활동을 해



10여년 넘게 일본엑서 베트남인들을 도와온 틱담치 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왔지만, 코로나 사태 후 실직한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의 도움 요청이 늘고 있다. 요청 쇄도로 이를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은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일 베트남대사관과 제휴하여 귀국 수속에서부터 공항까지의 배웅 등 2000명이 넘는 베트남인들을 지원했다. 사찰 내 수용이 어렵고, 수용인원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3곳에 임시 쉼터도 개설했다. 대은사의 이러한 노력이 알려지며 일본 내 베트남 이주민들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단체들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틱담치 스님은 "일본에서의 적은 임금도, 베트남에서는 큰 돈"이라며 "그러다보니 베트남 노동자들이 가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동현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틱담치 스님에게도 3번이나 자살미수 끝에 찾아 온 노동자도 있었다고 한다. 스님은 "사고사나 병사뿐만 아니라 매년 5, 6인의 자살자가 나온다"며 "코로나 사태 속에 이국에서의 힘든 생활을 버티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재 대은사는 수용인원 포화와, 베트남 불자들 바람으로 도쿄 근교 도치기현(栃木縣)에 대은사 분원을 개원한 상태다.

틱담치 스님은 "힘들 때 도와주는 다른 동포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내 내몰리고 쫓겼을 때 '마지막엔 대은사가 있다' 고 생각하고 찾아와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호활동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00여 대중이 머문 가람, CG로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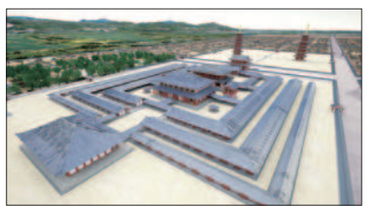
고대 일본국제도량 다이안지(大安寺) 눈길

12월 1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나라시의 남쪽에 지리한 다이안지(大安寺) 옛모습을 CG로 복원해 공개했다.

8세기 경, 지금의 나라를 수도로 한 나라시대에 대가람으로 창건됐던 다이안지는 죠메이 일왕의 발원으로 세워졌다. 그 규모와 위세로 한때 토다이지에 대비되는 난다이지(南大寺)로 불릴 정도였다. 당시의 규모는 약 2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7층 목탑이 산문 앞에 나란히 서고, 불당을 제외하고도 승당과 강당등 100여동의 전각이 늘어선 웅장한 모습이었다. 당시 사료에 따르면 최전성기엔 887명의 대중 스님들이 머물렀고, 인도나 베트남에서 온 스님들도 머물며 학인들을 지도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오랜 전란과 자연재해로 사세가 쇠퇴하면서 현재는 약 1만 평방미터 가량의 부지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목탑을 비롯한 여러 성보들도 소실되거나 유실됐다. 다이안지 측은 "오래전부터 옛 모습을 되찾기를 발원했으나, 이미 옛 부지에 민가나 상점 등이 자리 잡는 등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사찰 측은 나라문화재연구소의 감수 하에 CG복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료분 스님은 "현실적으로 옛 모습을 복원한다고 해도 일부를 재건하는데 불과하다"이라며 "그러나 CG를 통해 복



CG로 복원된 최전성기의 다이안지 전경.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원한다면 최전성기 가람 모습을 그대로 재현 가능하다. 당시 문화의 정수를 재현하고자 한다"며 CG복원에 기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당시 가람을 모두 잃어버린 다이안지의 실제 모습은 베일에 싸있다. 조사에 임한 전 나라시 매장문화재 조사센터장인 모리시타 에스케 박사는 "식당의 위치나 금당의 구조 등에 대한 해명이 관제로 남아있다. 사찰의 격은 매우 높았던 것에 비하여, 남은 자료가 빈약하다"며 완벽한 재현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CG복원에 드는 비용은 약 3천만엔(한화 약 3억원). 다이안지측은 사찰의 예산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다. 완성은 내년 3월을 목표로 내년 4월 말에 나라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다이안지 특별전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료분스님은 "그 옛날 융성함을 자랑했던 사찰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간다라 문명' 다큐, 스리랑카 상영

파키스탄 · 스리랑카 공동 제작

1~7세기 간다라 문명 소재
드론 활용해 전체풍경 담아
스리랑카 현지 영화관 상영

1~7세기 파키스탄 지역에서 번영했던 간다라 문명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간다라: 파키스탄의 불교 유산'이 화제다.

파키스탄의 국영 통신사 APP(Associated Press of Pakistan)는 지난 12월 5일(현지시간) "이 다큐멘터리는 간다라 문명의 역사적 뿌리를 조명하고 드론을 활용해 유적지의 전체 풍경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푸르른 산간 지역의 고산(高山)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그 속에 자리 잡은 불교 유적지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며 "조각상과 부도, 법당, 가옥 등 간다라의 건축 · 석조 작품과 유적에서 유적으로 이어지는 지그재그 트랙이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덧붙였다.



간다라 문명이 소개된 다큐멘터리 '간다라: 파키스탄의 불교 유산'. 사진출처=APP

'간다라'는 향기의 땅을 의미한다. 오늘날 파키스탄의 북서부 지역으로 고대 문명의 교차로로 일컬어진다. 이후 문명은 아프카니스탄과 포토하르 고원(Potohar plateau), 신드(Sindh) 등 일대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부처님 치아가 탁실라 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대학 중 하나이자 12세기경 발견된 가장 신성한 불교 본거지로 평가 받는 탁실라(Taxila)도 이 지역에 있다.

다큐멘터리 '간다라: 파키스탄의 불교 유산'은 이러한 유산들을 전 세계 불교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스리랑카에 있는 파키스탄 고등판무관 사무실과 시디비나약 씨네아트 유한회사 등이 협업했다.

프로젝트의 총 책임은 아그라히라 카나파 테로(Agrahera Kassapa Thero)가, 콘셉트와 대본은 비드야조티(Vidyajothi) 컨설팅 디렉터가 맡았다.

간다라 지역 각지에서 발굴된 불교 유물들의 역사적 가치도 집중 조명한다. APP는 "석공예 · 유물 · 도구 등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불교 유물들은 관객들을 과거 문명으로 가는 수 백 년의 긴 여행으로 안내한다"며 "간다라 문명은 세계사의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이라는 형제 국가 간 문화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종교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스리랑카 현지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16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와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총리 간 양자 협상 이후 스리랑카 총리의 관저인 템플트리(Temple Trees)에서 최초 상영됐다.

이 자리에는 임란 칸 총리와 마힌다 총리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국회의장, 국무장관, 국회의원과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라다크불교협 "불교女, 무슬림 개종 반대"

라다크 부지사에 강제결혼 반대성명…집단 폭동 경고

라다크불교협회(Ladakh Buddhist Association)가 불교도 소녀의 무슬림과의 강제결혼에 문제를 제기했다. 불교 소녀들이 결혼후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Indiatoday) 등 외신 매체의 12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라다크불교협회는 라다크 부지사 라다 크리슈나 마투르(Radha Krishna Mathur)에게 '무슬림 청년이 불교도 소녀와 강제적으로 결혼했다'며 소녀를 가족에게 되돌려 보낼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해당 매체는 현지 정보통의 말을 인용해 "라다크 지역에서 종교 간 결혼은 흔한 일이지만 이런 사례가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며 "몇 년 전 수 십명의 불교도들이 이슬람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일부 불교도들의 행동이 라다크불교협회를 움직이게 했다"고 설명



했다.

라타크불교협회는 라다 크리슈나 마투르 부지사에게 보낸 성명에서 "종교간 결혼의 유일한 동기는 강제 개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라다크에서 '매혹된' 결혼을 통한 지역사회 내 강제 개종은 사회 폭동을 촉발해 사유 및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교 소녀를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집단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8~12/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알기쉬운 우리말 화엄경 독송	무비 스님	우리출판사
2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7	도해 화엄경	쟈써	부다가야
3	프리스틴 마인드	욜갠 초왕 린포체	운주사	8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4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법륜 스님	정토	9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5	근본불교	이중표	불광	10	제로:현실을창조하는마음상태	천시아	젠북

책세상

“묘법연화경…고통서 벗어나는 실용 해법 제시”



묘법연화경
광우 옮김/정목 정리
김영사 펴냄/2만6천원

한국 비구니계 역사 광우 스님이 번역하고
유나방송 정목스님이 정리한 독송용 법화경
모든종파 수행갈등없이 아우른 ‘통합’ 경전
고통받는 중생 위한 명쾌한 진단과 처방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금강경〉〈화엄경〉과 함께 주요 대승경전으로 꼽히는 ‘경 중의 경’. 초행자의 막막한 마음, 수행자의 오랜 고민에 응답하는 궁극의 가르침 〈묘법연화경〉. 여러 번역본 중에서도 운율이 잘 맞고 뜻이 명료하여 널리 사랑받아온 태허(太虛) 광우 스님의 번역본을 제자인 정목스님이 정리했다. 다양한 불교 이론을 아우른 ‘통합’ 경전이자 대승정신 구현한 ‘상생’의 경전. 참된 공덕, 진실한 깨달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는 지침서이다.

정목 스님은 이번 재출간에 부쳐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인연과 공덕은 부처의 세계에 입성할 초대권을 받는 것과 같다”고 밝힌다.

부처가 “가장 깊은 것이어서 맨 끝으로 설한다”고 밝힌 이 경은 일불승(一佛乘)·본래성불(本來成佛)과 같은 핵심 교리에 집중하여, 세부적 방법 차이로 분열된 각 종파의 수행을 조화롭게 종합한다. 예로, 수행의 결실을 회향하고 모든 이가 해탈할 때까지 열반을 미루는 〈법화경〉 속 보살은 초기불교 수행의 최고 단계 ‘아라한’과 대승불교 이상형 ‘보살’의 모습을 함께 갖춘다.

〈법화경〉은 오늘날 우리가 되새길 평등과 상생의 가치도 전한다. 전통적으로 성불할 수 없다 여겨진 여성의 성불 장면을 담은 이 경은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지 말며” “점점 닦고 배우면 다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라고 설한다. 이처럼 세간의 분별을 떠나, 불성을 지닌 인간을 향한 신뢰를 베푸는 부처는 모든 중생을 멸도로 이끈다. 각 중생의 능력에 맞춘 비유와 해설을 방편으로 설하여 낙오하는 이가 없게 한다.

“최후의 진실한 가르침(감산대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참뜻을 가장 잘 나타낸 경전(지의대사)”이라 칭송받은 이 경전은 문학적 가치 또한 높이 평가받는다. 절묘한 비유와 풍부한 예화로 진리를 풀이한 이 경에 대해, 무협작가 김용은 “위대한 문학”이라 평했다. 이처럼 〈법화경〉은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생명력이 깃든 찬불(讚佛) 문학으로 널리 일컬어진다.

〈법화경〉의 주제는, 모든 수행의 궁극적 목표가 성불의 가르침을 깨치는 데에 있다는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일체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본래성불’이다. 다른 수행법을 폄하해온 종파불교의 한계를 넘어 핵심에 집중하여, 성문승·연각승·보살승을 저마다의 정당성을 지닌 중생 구제 방식으로 인정한 기념비적 경전이다.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또한 특출하다. ‘불타는 집에서 세 아들을 구해낸 아버지 이야기’ ‘보배구슬을 지닌 줄 모른 채 세간을 떠돌며 고생한 자의 이야기’ 등 비유와 예화를 통해 경을 읽는 모든 중생이 그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불자(佛子)’ ‘화택(火宅)’과 같이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불교의 주요 용어가 처음 소개된다.

부처님은 자식과 같이 여기는 중생들에게 “변변치 않은 빛깔·소리·냄새·맛·감촉을 탐하여” 화택에 있기를 그만두라고 설하며, 〈법화경〉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경을 읽고 베껴 쓰는 데 정진해, 감각기관을 깨끗이 하고 화택서 벗어나 불성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처럼 〈법화경〉은 고통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용적 해법을 제공한다. 나아가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화택에 즐겨 있는지를 설하며, 고통에 얽힌 중생의 상황을 진단하고 근본 처방을 제시한다. 또한 이 경전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불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성불에 이르는 방법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가’와 같이 초행자의 막막한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부터, ‘부처는 어디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무얼 하시는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보살은 무얼 할 수 있을까’와 같이 수행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질문에까지 응답한다. 문답의 과정을 따라온 독자는 ‘진정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궁극적 질문과 맞대면하고, 이로써 진리의 초입에 성큼 들어서게 된다.

앞서 걸으며 수행의 길을 닦은 광우스님의 정확한 해석과 정목스님의 친절한 안내를 도반 삼아 정진한다면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듯”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는 듯” 생사의 속박에서 풀려나 헤아릴 수 없이 큰 기쁨과 가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한 정목 스님은?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 지혜를 전하는 우리 시대의 멘토이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BBS 불교방송과 BTN 불교TV서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한국방송대상 사회자상과 전국프로듀서연합회 진행자상을 수상했다. 마음공부 전문매체 ‘정목스님의 유나방송’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199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 ‘작은사랑’을 펼치고 있다. 2009년부터 정각사 주지로 있다.

▲옮김이 광우 스님은?

한국 비구니계 선구자이자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다. 1939년 출가해 1960년 서울 청룡사서 보살계와 비구니계를 받았다. 1958년 정각사를 창건했고, 부산 소림사서 10년 넘게 법화산림을 열었다. 1995년부터 8년간 전국비구니회장을 지냈고, 2007년 조계종단 최초로 명사 법계를 받았다. 정각사에 주석하다 2019년 입적했다. “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왔다 갈 뿐이다”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책 속의 밑줄 긋기

“그대들은 삼계화택에 있기를 즐기지 말지니, 변변치 않은 빛깔·소리·냄새·맛·감촉을 탐하지 말라. 만일 탐내어 애착하면 곧 불에 타는 바가 되느니라. 그대들이 이 삼계에서 빨리 나오면 마땅히 삼승인, 성문승·벽지불승·불승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니, 결코 허망하지 아니하리니, 그대들은 다만 부지런히 닦아 정진하라. 여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권유하여 바른길로 나아가게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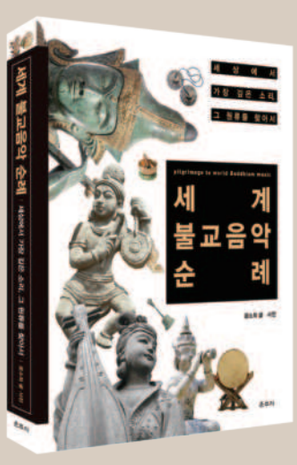
〈비유품〉중에서

“세존이시여, 큰 재산을 가진 장자는 곧 여래이시고 저희는 부처님 아들과 같사옵니다. 여래께서는 항상 저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삼고(三苦)에 얽힌 까닭에 생사고해에서 여러 가지 뜨거운 고통을 받으며 미혹하고 아는 바가 없어 소승법만을 즐겨 집착하였나이다. 오늘 세존께서 저희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론(戱論)의 분뇨를 없앨 것을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저희는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멸도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었나이다.” 〈신해품〉중에서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비유컨대 큰 구름이 한 맛의 비로 사람의 꽃 적셔서 열매 맺음과 같느니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라. 이러한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 불도를 열어 보이나니 이것이 나의 방편이요,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시니라. 내가 이제 그대들 위해 최후 진실을 말하노니 모든 성문들은 다 멸도한 것이 아니요, 그대들이 행할 바, 그것이 보살도이니 점점 닦고 배우면 다 마땅히 부처 이루리라.” 〈약초유품〉중에서

“전도된 생각으로 모든 법이 있다·없다, 실상이다·실상 아니다, 난다·나지 않는다고 분별하나니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 닦아 거두어 편안히 머물러 동하지 않기를 수미산같이 하라. 일체의 법을 관하되 다 있는 바가 없음이라.” 〈안락행품〉중에서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세계 불교음악 순례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각국의 불교음악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지음/사륙배판/440쪽
값 28,000원

인물로 보는 중국 선사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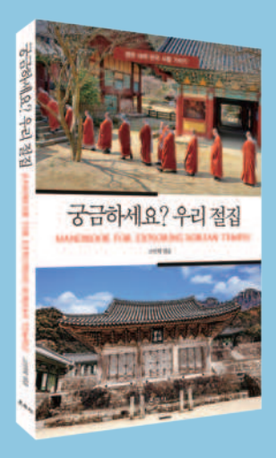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중국 선의 역사!

중국 선종사의 주요 선사들의 삶과 사상 등을 살펴보면서 중국 선의 방대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한 역작! 풍부한 사진과 꼼꼼한 법계도가 이해를 돕는다.

정운 지음/신국판/양장/616쪽/값 30,000원

때론 영어로 보면 더 쉬운 불교공부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
HANDBOOK FOR EXPLORING KOREAN TEMPLE

익숙하지만 막상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 절집! 외국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절집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영한 대역 불교입문서!

고연희 엮음/신국판 변형/244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벽화 속 반야용선 타고 극락세계로



신륵사 극락전 벽화 中 '반야용선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의림지역사박물관 2021년 기획전

'월악에 펼쳐진 극락정토, 신륵사 극락전'

2022년 4월 24일까지 지하1층 기획전시실
극락전 불화모사도 · 소장문화재 등 60여점
충북지역 사찰벽화 비교 · 연구 중요 자료

제천시 월악산 신륵사 극락전 벽화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충북 제천 의림지역사박물관은 2022년 4월 24일까지 지하 1층 기획전시실에서 2021 기획전 '월악에 펼쳐진 극락정토, 신륵사 극락전'을 개최한다.

신륵사 극락전 벽화에 반영된 18~19세기 제천 지역의 문화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극락전 내 · 외벽의 벽화(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1호) 모사도 11점과 삼층석탑 출토 소탑 등 신륵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60여 점을 선보인다.

신륵사 극락전에는 130여 점의 벽화가 있다. 이 가운데 극락장엄을 표현한 것으로는 내부반자의 극락조, 운룡, 주악비천과 대량의 반룡이 있으며, 외부 창방 · 평방에 별지화로 단청된 서조(瑞鳥)와 서수(瑞獸)가 있다. 또한 포벽의 주제로 등장하는 나한도를 비롯하여 마명조사도, 현수대사도, 보각선사도 등 고승의 이야기들이 묘사되고 있어 벽화를 제작했던 화원이 교학을 겸비한 선승이었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의 주제로는 내 · 외부 벽에 사명대사행일본지도, 위왕조조도, 아미타삼존내영도 등이 있으며,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교화적으로 상징한 토어도(吐漁圖)가 눈에 뜨인다.

먼저 외부에는 동측면에 토어도, 사명대사행일본지도, 유선도, 위왕조조도를 비롯하여 서측면에 토어도, 반야용선도, 혜가대사단비도, 아미타삼존내영도 등의 벽화가 있다. 이외 동서로 6점의 벽화 있는데, 기둥을 중심으로 3칸의 벽체를 나누어 창방 위 상벽에 있다. 중앙에는 사명대사행일본지도, 반야용선도, 좌우 협칸에는 위왕조조도, 아미타삼존내영도 등을 연녹색 바탕 위에 거친 필선으로 그렸다. 이는 화제(話題)와 초본의 중첩, 채색의 둔탁함 등으로 보아 19세기 초반에 조성된 이후 가채한 것으로 보고있다.

외부 내부 벽에는 동서남북 벽체와 포벽 · 상벽 · 천장에 걸쳐 총 60여 점의 벽화가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동 · 서면에는 폭 229cm, 길이 176cm의 장방형 화면에 문수 · 보현보살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마명조사 · 현수대사도, 나반존자, 보각선사도, 그 아래에 월악산령도, 범왕제석도, 대자재제석도 · 제십육존자도, 하부 벽체에 금강역사도가 조성되어 있다. 모두 연녹바탕에 세선묘로 바탕을 그리고 동적인 모습을 표현했는데, 마치 불화를 보는 듯한 정교함과 화려한 색채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제작 시기는 19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며, 금강역사도는 동적인 모습과 활달한 필치가 무장의 자태를 느끼게 하지만 외부 벽체와 마찬가지로 후대에 개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남 · 북측 면에는 포벽에 15점의 나한도를 비롯하여 북측 면 하단에 금강역사도와 화훼도가 조성되어 있다.

신륵사 극락전의 내부 벽화는 비교적 원형보존이 양호한 상태로 채색기법과 색상, 운필방식, 화원들의 연관성 등 충북지역의 다른 벽화들의 편년추정과 비교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사명대사행일본지도'는 1604년 9월 초, 선조의 명을 받아 수신사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명대사의 행적을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에 도착하는 모습이라는 의견과, 귀환하는 모습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 단정할 수 없다. 〈임진록〉과 같은 조선 후기 소설에는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도술을 부려 항복을 받아내고 포로와 함께 귀국하는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는 임진왜란의 통한을 씻어준 바 있는 사명대사가 영웅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명대사의 활약상이 벽화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벽화로 그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반야용선도'는 용선(龍船)을 타고 인로왕보살의 인도 하에 극락세계로 가는 중생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현재 몇 점 남아있지 않은 그림이다. 화면 구성은 배의 돛대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인로왕보살이 삿대를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이 삿대를 잡고 있다. 왕생자(往生者)들은 앞뒤에 앉아 합장한 모습이며, 화면 아래에는 왕생자들이 탄 작은 거룻배가 용선에 연결된 밧줄에 의지하여 이끌려가고 있다.

△ '아미타삼존내영도'는 아미타삼존이 왕생자를 서방극락세계로 맞이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왼쪽에 아미타삼존과 오른쪽에 아미타불의 인도로 극락세계로 나아가는 왕생자들이 탄 배를 배치했다. 아미타삼존은 가로로 아미타불 · 대세지보살 · 관음보살 순으로 그려져 있으며, 아미타불은 왼손에서 서기(瑞氣)를 발하여 왕생자들이 탄 배를 이끌고 있다.

△ '기사문수동자도'는 내부 동측 면 벽 중앙에 세로로 긴 화면을 만들고, 사자를 탄 문수동자를 그린 그림이다. 오른쪽으로 향한 사자는 머리를 화면의 앞쪽으로 돌려 몸을 ㄱ자형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좁은 화면 구성에 따른 공간 확보와 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신륵사는 충청북도 제천시 월악산 계곡에 자리한 사찰로, 신라 진평왕 때인 581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극락전의 공포 구조로 보아 19세기 전반에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법당의 영산회상도와 현왕탱이 새로 조성되고 사찰에서는 불화를 조성한 화승들에게 전각 내 · 외부의 벽화와 단청을 함께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시문의(043-641-6567)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문화향연
'박물관 속 피아노'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6월부터 온라인문화향연 '박물관 속 피아노'를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의 대표 유물 · 전시에서 느낀 아티스트의 느낌과 아티스트가 선정한 곡들을 관람(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향연' 공연으로, 각 박물관의 유물 · 전시와 함께 피아노 연주를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1 윤석철 트리오-'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

'박물관 속 피아노'의 '첫 번째 이야기'는 6월 22일 진행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에서 만나는 윤석철 트리오(피아노 윤석철, 베이스 정상이, 드럼 김영진)의 연주다.
https://www.youtube.com/watch?v=P7jW9bEU1MI

#2 이진아 트리오-'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



'두 번째 이야기'는 7월 12일 진행한 국립춘천박물관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이진아 트리오(피아노 이진아, 베이스기타 박종우, 드럼 서주영)의 공연이다. 중생의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는 오백나한과 함께 이진아 트리오의 '어디서부터', 'Dangerous Dream', 'Awake'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국립춘천박물관의 브랜드실 전시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은 2018년, 2019년 특별전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전시로 2001년 발굴된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전시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T2VRY7vWns

#3 양방언 트리오-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삼존미륵불



'세 번째 이야기'는 9월 24일 국립경주박물관이 진행한 신라미술관에서 만나는 양방언 트리오(피아노 양방언, 바이올린 강이채, 첼로 나인국)의 공연이다. 삼존미륵불을 배경으로 'Pure Imagination', '차마고도', '야상월우', '바람의 약속'을 연주한다. 신라미술관은 1층의 불교미술 I실과 불교미술 II실, 2층의 황룡사실 등 3개 실에서 경주 남산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삼존불상(보물 제2071호) 등 약 550점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미술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njOvVT19hM

#4 모과(Mogwaa)-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실'

'네 번째 이야기'는 10월 29일 국립광주박물관이 진행한 '아시아도자문화실'에서 만나는 모과(Mogwaa)의 공연이다. 신안 해저에서 발굴된 도자기들을 배경으로 'Drizzle', 'Green water', 'I hear the voice'을 연주한다.

#5 4인 놀이 · 오은혜-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

'다섯 번째 이야기'는 11월 26일 진행된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와 함께 만나는 4인 놀이(윤서경, 이영섭, 김승태, 이재하)와 오은혜 피아니스트의 공연이다. 다채로운 국악 연주와 오은혜 피아니스트의 Eco(에코), 핑거댄스, Nori(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7q8Sg6gi-0&list=PLHwcOk-ZIhVMKMHy--7q_RVUZqbif4ipr&index=2&t=17s

박재완 기자

전통불교전문 강원 학인 모집

본사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의 각행원만과 종지종풍을 확립하고
도제양성을 위해 강원학인(신입, 편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 치문반 : 00명, 태고종, 타종단 승적 보유자
▶ 사집반 : 00명, 본사 강원 치문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는 불가)
▶ 사교반 : 00명, 본사 강원 사집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 불가)
※ 사집, 사교반은 본종 승적 보유자에 한함.
※ 학과 내용 : 강원 정규교과 外 서예, 특강,
불공습의, 제반의례의식
※ 특전 : ① 장학금 매년 100만원 지급
② 대교반 졸업 후 선원 입방 자격 부여
※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 1부(본사비치, 입방시 작성가능)
② 승적원부 사본 1부
(타종단 동일, 본종 46기 수계자는 수계증 사본)
③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④ 건강 진단서 1부
⑤ 사진 4매
⑥ 입방비 50만원 (강원 교재비 포함)
※ 입방 일자 :
2021년 12월 31일~2022년 3월 1일 까지
(입방일로 부터 습의과정 3개월 필요함)
☎ 연락처
본사 종무소 : 061) 754-5247 / 5953
강 원 : 061) 754-5954
010-3789-5247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
종단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수강생 모집 안내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들에게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찰에서 통학을 하면서 주 2일 수강 하는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강 일시 : 2022년 3월
▣ 강의 일정 :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
▶ 첫째날 - 14:00 ~ 16:00 (2시간)
▶ 둘째날 - 03:30 ~ 04:40 (아침예불)
05:20 ~ 06:00 (발우공양)
09:00 ~ 11:00 (2시간)
※ 개인사정에 따라 매일 통학 가능
(코로나19확산 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과목
▶ 1학년(치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 2학년(사집반) : 서장, 선요, 도서, 절요
▶ 3학년(사교반) :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 4학년(대교반) : 화엄경
▶ 공통 :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 강사 :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목우스님, 강사 각안스님,
외래 초빙강사: 불교문학박사 법우스님,
철학박사 혜월(안유숙) 전법사
▣ 수강료 : 한 학기(6개월) 600,000원.
농협 351-0422-9291-33 예금주:선암사
▣ 특전
▶ 통학하며 수강.
▶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 수여
한 학년 수강 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 수여
▶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 편입학 가능
▶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 실시(희망자에 한 함)
▶ 타종단 승려도 수강 가능
▶ 성적 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졸업 후 선암사 선원 안거 자격 부여
▶ 졸업 시 선지도자 자격증 수여
▣ 등록서류 : 입학원서 외 (입학원서에 명시되어 있음)
▣ 등록마감 : 2022년 2월 28일
※ 입학원서는 선암사 홈페이지(www.seonamsa.net)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전화 061-754-5247, 5953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강원장 시 각 |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061-754-5247, 5953

‘조선 승려 장인’ 면면을 만나다

국립중앙博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

내년 3월 6일까지 전시 진행
승려장인 주제 첫 전시 ‘눈길’
미디어 아트 활용 이해 높여

33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보물 용문사아미타설법상 비롯
僧匠 단응 · 신겸 作 등 한자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에서 불상과 불화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신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예술작품이다. 경전에 따르면 처음 불상을 만든 이는 ‘비수갈마천(공작에 능통한 신)’이다. 현실에도 불상과 불화를 만든 ‘비수갈마천’이 있었으니 바로 ‘승려 장인(僧匠)’이다. 수행자이자 예술 장인이었던 ‘승려 장인’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내년 3월 6일까지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조선시대 승려 장인들을 조명하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 불교미술 열쇠, 승려 장인

그동안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쇠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때문에 이 시기의 불교미술 또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특히 임진왜란(1592~1598) 이후의 조선 후기에 불교미술은 활발히 제작됐으며, 현재 전국의 사찰에는 이때 만든 수많은 불상과 불화가 전한다. 그중에는 다채롭고 화려하며 수준 높은 작품 또한 적지 않다. 이는 승려 장인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승려 장인은 전문적인 제작기술을 지닌 출가승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분야의 승려 장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신앙의 대상인 부처를 형상화하는 조각승(彫刻僧)과 화승(畵僧)이 중심이 됐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력해 불상과 불화를 조성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으며 기술을 전수했다.

최근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등에 의해 승려 장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그들 유파의 계맥과 작품 양식들이 조명되기 시작했고, 색난의 작품은 국보로 승격 · 지정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조각승 단응이 조성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조선 승려 장인 대표작 총망라

국내외 27개 기관과 15개 사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국보 2건, 보물 13건, 시도유형문화재 5건 등 총 145건을 출품하는 대규모의 조선시대 불교미술전이다. 전시된 작품의 제작에 관여한 승려 장인은 모두 366명이다.

특히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에 활동한 조각승 단응(端應)이 1684년(숙종 10)에 불상과 불화를 결합하여 만든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은 이번 전시를 위해 337년 만에 처음으로 사찰 밖으로 나왔다. 크기가 3m에 달하는 대작인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공간 하나를 활용해 오롯이 설법상을 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붓의 신선’으로 불렸던 18세기 전반의 화승 의겸(義謙)이 1729년(영조 5)에 그린 ‘해인사 영산회상도’(보물),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화승 화련(華蓮)이 1770년(영조 46)에 그린 ‘송광사 화엄경변상도’(국보)도 서울 전시는 처음이다.

미디어 · 설치미술 등 눈길

미디어 아트와 설치미술 등으로 불교미술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도 이번 전시가 눈길을 끄는 이유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이자 예술 장인인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인터뷰에서는 불교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시킨다. 전시 도입부 영상 ‘손으로부터’는 장 줄리앙 푸스의 작품으로 나무와 돌, 비단과 삼베 같은 평범한 재료가 승려 장인의 손끝에서 불상과 불화로 완성되는 과정을 그려낸다.

전시 제3부의 실감 영상 ‘화엄의 바다’는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를 선재동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알기 쉽게 풀어낸다. 또한 검색 키오스크를 설치해 전시에 출품되지 않은 여러 승려 장인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조선 후기의 조각승은 1000여 명이고, 화승은 2400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수의 승려 장인이 활약했던 이 시기는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르네상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특별전이 조선의 승려 장인과 이들이 만들어낸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령사지 오백나한, 첫 해외 나들이

시드니 파워하우스博서
내년 5월 15일까지 전시
韓 · 호주 수교 60년 기념



전시된 창령사지 오백나한의 모습.

고려시대 조성된 ‘창령사지 오백나한’이 첫 해외 전시 길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은 “한국과 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시드니 파워하우스박물관에서 내년 5월 15일까지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워하우스박물관은 1879년 시드니국제박람회를 계기로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설립한 호주 대표 박물관이다.

파워하우스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국립춘천박물관이 유물을 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진흥원, 주시드니 한국문화원, 호주 외교부 산하 호한재단이 후원하는 등 양국 다수의 기관이 협력했다. 특히 영월 창령사 터에서 출토된 나한 석조상의 첫 해외 전시로, 파워하우스박물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폐쇄 이후 처음 선보이는 특별전이다.

오백나한은 2001~2002년 강원도 창령사 옛 절터에서 발굴된 석조상으로, 한국 불교의 황금기인 10~14세기 사이의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한’은 산스크리트어 아르한(arhat)을 한자로 음역하여 만든 ‘아라한’의 줄임말이며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의미한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석가모니의 제자 나한상은 국립춘천박물관에 의해 정교하게 복구되었고, 이후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시로 처음 소개됐다.

이번 호주 전시에서는 1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쌓은 김승영 설치작가의 ‘타워(Tower)’ 작품 곳곳에 50점의 나한상과 한 점의 부처상을 배치하고, 오윤석 사운드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규모 체험형 전시로 구성됐다.

리사 하빌라(Lisa Havilah) 파워하우스박물관장은 “오백나한전은 2019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로 꼽혔으며, 이처럼 훌륭한 전시의 첫 해외 특별전을 호주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국제기관 및 예술가들과의 협업은 우리 박물관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호주 관람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수리 힘 모은다

전통건축수리재단 · 안동시청 12월 6일 업무협약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보물 ‘안동 조탑리 오층석탑’의 수리를 위해 문화재 전문 법인과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 산하 특수법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과 안동시청(시장 권영세)은 12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물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의 체계적인 수리 · 보존 · 활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과 안동시는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완료를 목표로 부재의 보존처리, 구조보강, 전탑 조립과 주변정비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은 통일신라시대 화강암과 전돌을 이용하여 쌓은 높이 약 7m의 탑으로, 역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어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특히, 조탑리 오층전탑은 우리나라 전탑 중에서 유일하게 1층 탑신부



(塔身部, 몸돌) 전체를 화강석으로 조성해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부재의 균열과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돼 보수에 들어갔고, 보수를 위한 가설시설의 설치, 주변 발굴조사 및 기존 전탑 해체 등을 추진한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전탑의 중요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고건축, 전통재료, 보존처리, 구조 등)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의 자문을 받아 수리공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또한, 전탑의 수리와 관련된 수리기준과 전돌의 재사용기준 검토 등에 연구 성과는 수리기술 향상과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제11회 계절발표회 연다

오는 12월 18일 안양본원서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의 지역친화적 포교 활동 방안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제11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한마음선원의 지역친화포교 활동과 개선 방안’을, 이현중 충남대 교수가 ‘대행사상과 주인공 관법’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석환 동국대 교수, 이상호 서강대 박사가 참여한다.

한편, 이번 계절발표회는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031)470-3276/3277 신성민 기자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악몽자주꿈,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6



▶ 47회 예고
선봉대장은 아쇼까 부왕이 순행할 수나빠란따국으로 지형정찰을 떠난다. 그런데 상업도시 숫빠라까를 눈앞에 두고 해적들에게 붙잡힌다. 정찰조 군사 몇 명은 노예로 팔려가지만 늙은 길잡이와 선봉대장은 극적으로 탈출한다.

비베깐난다, 별궁으로 와서 축원

데바 부인은 딸 데비를 위해 별궁에서 함께 살았다. 데비도 우두머리 시녀가 거들어주는 것보다 어머니의 보살핌이 더 편했다. 데바 부인은 시녀들을 데리고 데비의 산후조리를 도맡다시피 했다. 데비가 아버지 데바를 위해 저택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무역하러 이웃 나라에 계실 때가 많지. 아버지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데바 부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데바는 베디샤 상인수장으로서 주로 까시국 바라나시에 있을 때가 많았다. 소국의 상인들이 마우리아국의 중심부에 있는 까시국으로 모여들곤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까시국 바라나시는 여러 강이 합류하는 강가강을 끼고 있어 상인들의 물건 운송이 대단히 편리한 도시였던 것이다.

"난 마힌다를 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하단다."

데바 부인은 마핸드라를 마힌다라고 불렀다. 데비도 마찬가지였다. 산스끄리뜨어보다는 아반띠국 평민의 말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이었다. 데비가 아기 이름을 부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마힌다야!"

아기가 데비와 데바 부인을 쳐다보며 머루알처럼 검은 눈을 반짝였다. 잠시 후에는 방긋 웃었다. 데바 부인이 말했다.

"데비야, 마힌다를 위해 축원해준 라다굽따 제관님이 고맙구나."

"어머니, 지금 산치 절에는 누가 있어요?"

"앙가국 짬빠에서 온 비베깐난다 사문님이 계시지. 아버지가 앙가국에 무역하러 갔다가 모시고 온 수행자님이야."

"어머니, 비베깐난다 사문님이 마힌다를 위해 축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데바 부인은 데비의 청을 바로 들어주었다. 산치 동산에 있는 절이 개인 원찰이기 때문에 비베깐난다 사문을 데려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데바 부인은 별궁으로 올 때 데리고 온 하인을 산치 절로 보냈다. 하인은 베디샤나가르에 있는 데바의 농원에서 일하다가 웃자인 저택으로 온 사람으로서 산치 지리를 환히 꿰고 있었다. 데바 부인은 하인에게 말까지 내주었다. 하인에게 데바 부인이 타는 호마를 내준 것은 비베깐난나 사문을 빨리 모셔오라는 뜻이었다. 하인이 떠난 뒤 얼마쯤 지나서 데바가 별궁으로 왔다. 외손자를 보고 싶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데바는 아기를 보더니 마핸드라라고 불렀다.

"마핸드라야, 부왕님을 닮은 마핸드라야."

"여보, 나와 데비는 웃자인 말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 당신도 편하게 웃자인 말로 하세요."

"마핸드라면 어떻고, 마힌다면 어떻소. 아기는 똑같은 아긴데. 정 그렇다면 나도 편하게 마힌다라고 부르겠소."

"데비야, 네가 부왕님께도 말씀드려라. 산스크리트어 마핸드라가 고상하긴 하지만 이곳 말로 정겹게 부르자고 말이다."

"네, 어머니."

데바는 이름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올 이익을 두고 계산하기에 바빴다. 아쇼까 부왕이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을 떠나는데 자신도 동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곳의 상인수장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은 데바의 오래 전 꿈 중에 하나였다. 데바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했다.

"여보, 부왕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소. 우리 마힌다 덕분이오."

"마힌다가 복덩어리군요."

"그렇소.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 가실 때 나도 동행하기로 했소. 나에게는 참으로 큰 선물이라오."

"수나빠란따국은 당신이 무역하러 가서 늘 성사를 시키지 못했던 나라가 아닌가요?"

"다른 나라 상인수장들에게 거래에서 늘 밀리곤 했지요. 그곳의 상인수장 수완에 놀아난 것이오. 그러나 그곳 상인수장을 통하지 않고는 큰 무역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오."

큰 무역이란 해외무역을 뜻했다. 수나빠란따국의 숫빠라까 항구 상인들은 큰 배로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오가며 무역을 했으므로 마우리아국에서 볼 수 없는 보석과 물품들이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수나빠란따국 상인수장은 해외무역을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부왕님과 함께 가니 그곳 상인수장도 별 수 없을 것이오. 부왕님께 접근하려고 내 비위를 맞출지 모르오. 벌써 수나빠란따국에서는 내가 부왕님의 장인이라고 소문이 났을 것이오."

데비도 마음이 흐뭇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 데바를 돕고 싶었는데, 마힌다 출생 자축연에서 아쇼까가 순행지 동행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니 은근히 행복했다.

"아버지, 저도 기뻐요. 마힌다가 벌써부터 행운을 가져다주는군요."

"데비야, 마힌다를 한 번 안아보고 싶구나."

데바는 아기를 안고 방안을 한 바퀴 돌았다. 아기가 낯선 데바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자 데바가 얼른 데비에게 아기를 건네주었다.

"아버지, 순행은 언제 떠나요?"

"그건 비밀이란다. 내 생각으로는 한 달 이내에 떠날 것 같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선봉대장이 먼저 지형을 정찰하러 떠났단다."

데바 부인이 말했다.

"이 모든 행운은 산치 절에서 사문님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한 덕분이에요. 데비야, 그렇지 않니?"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문님들이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붓다의 사끼야족 후예다운 말이었다. 조상 가운데 고따마 붓다가 계셨다는 것을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는 사끼야족 후손들이었던 것이다. 데바가 산치에 절을 세운 것도 조상 중에 불세출의 성자 고따마 붓다를 흠모해서였다.

데바가 내성 저택으로 돌아간 뒤, 궁중제관이 또 왔다. 시프라강 강물에 몸을 오랫동안 적시며 기도해온 궁중제관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제관이었다. 아쇼까가 아반띠국의 부왕이 된 이후 모든 정사를 낱낱이 상의해온 측근 제관이기도 했다.

"부왕비님, 부왕님께서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마핸드라 왕손님은 어떻습니까?"

"덕분에 마힌다는 무탈합니다."

데비는 일부러 '마힌다'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힌다가 왕가에서 권력을 얻기보다는 평민들과 함께 존경을 받으며 살기를 바랐다. 데바 부인은 데비의 마음을 아직 알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기 이름이 마핸드라보다는 마힌다가 더 친근한 것은 사실이었다.

"제관님, 마힌다가 더 사랑스럽지요?"

"웃자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이오."

"그래서 우리는 마힌다로 부르기로 했어요."

"아, 그런지 몰랐소."

늙은 궁중제관은 바로 아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원을 시작했다. 아기가 병 없이 건강하게 자랄 것, 훗날 마우리아왕국에 영광을 더하는 왕손이 되어달라는, 지난번에 축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래도 데바 부인은 데비와 달리 고마워서 궁중제관을 정중하게 예우했다.

"짜이를 드시겠습니까?"

"달콤하고 따뜻한 짜이는 언제나 좋지요."

늙은 궁중제관은 데바 부인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짜이는 인드라신도 즐겨 마실 것 같아요."

데바 부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두머리 시녀가 베란다로 나가 짜이를 토기잔에 담아 들고 들어왔다. 밖에는 데비와 데바 부인이 아무 때나 짜이를 마실 수 있게끔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늙은 궁중제관은 짜이 한 잔을 마치 귀한 술을 마시듯 조금씩 음미하며 흡족해했다. 짜이가 자신의 콧수염에 묻자 아까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데바 부인, 인드라신이 내린 차가 있다면 바로 이 짜이일 것이오. 하하하."

궁중제관이 크게 웃는 바람이 아기가 놀랐다. 고개를 젖히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궁중제관이 도망치듯 뒤뚱뒤뚱 방을 나갔다. 늙은 궁중제관의 우스광스런 모습에 데비가 웃었다.

다음날 오후.

데바 저택의 하인은 어김없이 별궁으로 비베깐난다 사문을 데리고 왔다. 데바 부인은 비베깐난다 사문을 베디샤나가르 농원으로 초대하여 공양을 올린 적이 있지만 데비는 처음으로 상면했다. 데바 부인과 데비가 베란다까지 나가 비베깐난다 사문을 맞이했다.

"나마스떼!"

비베깐난다 사문은 하인이 베란다 입구에 갖다 놓은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을 씻은 뒤 방으로 들어왔다. 데비가 비베깐난다 사문에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서 말했다.

"사문님을 뵙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부왕비님께서 초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비베깐난다 사문이 합장한 손을 이마까지 올렸다. 데비는 비베깐난다 사문이 말할 수 없이 자애롭다는 것을 느꼈다.

"멀고 먼 앙가국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앙가국의 수도 짬빠성에서 왔지요."

"짬빠성이라면 다르마 왕비님의 고향이군요."

"그렇습니까? 고타마 붓다의 제자 소나 꼴리위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비베깐난다는 데바 부인과 데비를 위해 짧은 설법을 했다. 설법은 붓다와 소나 꼴리위사의 일화였다.

소나는 몇 년을 쉬지 않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았다. 소나는 비탄에 빠졌다.

'애를 써도 이루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착한 일을 하면서 복을 짓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소나는 집으로 돌아갈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때 붓다가 소나의 마음을 알고서 말했다.

"소냐여, 너는 세속에 있을 때 비파를 잘 탔었다지?"

"네 그랬습니다."

붓다는 잠시 침묵한 뒤 소나를 타이르듯 말했다.

"네가 비파를 타려고 그 줄을 고를 때 너무 조이면 어떻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었을 때는?"

"그때도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거나 조이지 않고 알맞게 잘 골라야만 맑고 미묘한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 너의 정진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리게 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도 방일하지도 말아라."

순간, 소나는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태도에 있었던 것이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설법을 마치고는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원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비파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어른이 되어서는 무슨 일을 하든 집착하지 말고 또한 방일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축원했다. 데비는 비베깐난다 사문의 축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마힌다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비파와 같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23 공부



▶ 한줄 요약
범부도 청춘시절 밤잠 설치는데, 생사윤회 해탈하려는 자의 공부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매일여, 깨달음의 기준

〈寤寐一如〉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란 깨달은 분이다. 우리도 깨치면 생사 윤회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누구든지 깨칠 수 있다. 선(禪)은 본래성불을 말한다.

그런데, 이 깨달음에 대하여 너무나 다양한 견해가 난무하여 불교의 정체성에 혼란이 적지 않다. 예수교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만이지만, 불교는 믿음에서 나아가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 불교의 근본은 깨달음으로 생사 윤회를 해탈함이다. 믿음을 넘어선 깨달음, 그 깨달음이 불교만의 특색이다.

근래에 우뚝한 선지식들이 하나둘 가시면서 불교의 정견 자체를 비방하거나 왜곡되게 하는 흐름이 있기도 하다. 어느 시대에도, 부처님 당시에조차 늘 정견과 사견이 있어왔지만 정견 흐름은 늘 이어져 왔다. 어려운 때일수록 부처님과 조사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믿고 바름과 삿됨을 바로 보는 정견을 확고히 해야 한다.



행주좌와 화두가 성성하게 끊어지지 않을 때 화두타파의 실마리가 보인다.

깨달음, 삼매의 완성

불교의 정견 세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음에 대한 문제다. 근래 부처님의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 아닌 조그마한 소견 내지 체험을 가지고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날로 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난 다음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에서 당신이 중도를 깨달았노라고 중도 대선언을 하셨다. 중도의 깨달음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無上正等覺,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다. 다른 말로 열반(涅槃, 니르바나)이라 한다. 일체 번뇌의 소멸을 이루어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난 것이다. 영원한 대자유를 성취한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그 마음 상태를 선정 삼매라고도 한다. 일체의 번뇌를 완전히 비운 청정한 마음이 삼매이다.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완전한 소멸된 것이다. 깨달아 부처가 된 이는 부처 행을 한다. 지금 이 순간 깨달아 부처 행을 하면 부처이지 전생이나 과거는 상관할 것이 없다.

초기 경전에 보면 초전법륜에서 오비구를 비롯하여 수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던 중 언하대오하여 깨친다. 초기 경전에는 깨달음이 도처에 나온다. 부파불교시대가 되어 깨달음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기록되었다. 지금 남방 상좌부 승가에서 수행 교과서로 삼는 〈청정도론〉에서는 중생이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것을 '삼아승지겁(三阿僧祇劫,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세월을 세 번이나 윤회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가르침에서 너무나 멀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

선(禪)의 깨달음, 돈오(頓悟)

초기 경전에서 오비구의 깨달음은 언하대오(言下大悟)이다. 부처님의 첫 설법에서 다섯 수행자가 차례대로 깨달아 부처님 제자가 되어 첫 승가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불교의 출발이다.

선은 비록 부처님이 가신지 1천년이 지나 출현하였지만, 부처님이 깨친 중도와 찰나 깨침을 되살린 불교 정신의 회복이다. 초기 경전처럼 선어록에도 조사와 제자들이 문답 중에 숱하게 깨친 기록이 나온다.

다만, 선은 부처님이 깨친 중도연기를 근본으로 하면서 시대 변화와 함께 독창적인 말을 쓴다. '본래청정', '돈오', '견성성불', '화두'와 같은 말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는 볼 수 없는 부처님 제자, 조사의 설법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중도연기, 무아라는 것을 깨친다고 하였다면, 선은 중생이 중도연기로 존재하니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친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일체 번뇌를 소멸하는 깨달음을 말씀하셨다면, 선은 본래 부처이니 중생이라는 분별망상을 비우고 비워 마지막에 깨치는 순간을 돈오(頓悟)라 한다. 돈오라 하여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일체 망상을 없애어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것이다.

화두선의 깨달음, 삼관(三關)

선에서는 이 분별망상을 비우는 탁월한 방편으로 화두 참선법을 제시한다. 조사가 제시한 한 마디 말로 일체 분별망상을 정화하는 것이 화두 참선법이다.

이 화두선에서 깨달음은 내 안에 본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니 밖으로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고, 밝게 빛나고 있으니 오직 화두로 분별망상만 비우면 된다.

> **백척간두, 은산철벽 경지**
> **자나 깨나 지속되는 화두**
> **한결같은 공부, 부처의 길**

화두선에서 내 안의 분별망상을 비워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내가 본래 부처임을 바로 알아 정견을 세우고 믿음을 갖추어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참선해 나가는 참구 깨침의 길이 있다.

다른 하나는 화두를 받자마자 바로 타파해서 깨치는 순간 깨침의 길이다. 참구 깨침의 길이든 순간 깨침의 일이든 번뇌망상을 완전히 비운 것이 깨달음이다.

다만, 조사어록에서는 화두선에서 깨달음의 기준으로 세 가지 과정을 제시하는데 화두가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또는 오매일여 하면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으로 본다.

화두의 동정일여와 몽중일여 경계

대중가요 중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다.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애절한 가사가 범부중생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노래 말처럼 화두 참선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화두를 참구할 때 앉으나 서나 화두만 생각해서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동정일여(動靜一如)다. 이것은 우리 의식이 깨어나 앉아서 좌선할 때나 서서 걸어 다니고 움직일 때에도 화두 의심이 지속되는 경지를 말한다. 유식(唯識)에서 말하는 6식 · 7식 · 8식 중에서 6식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성철 스님은 출가 전에 산청 지리산 대원사에 요양 가서 〈불교〉 잡지를 보고 혼자서 화두 참선한 지 42일 만에 화두가 동정일여가 되는 것을 체험했다. 스님은 출가하여 불교 중흥의 큰 역할을 하셨다. 화두선에서 동정일여 체험이 어렵다고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미 출가 전에 혼자서도 이 경지에 들었으니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화두선의 동정일여는 심리학에서 의식 세계를 정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의식이 깨어있을 때 번뇌망상이 없는 경지를 말한다.

다음은 몽중일여(夢中一如) 경지다. 화두가 앉으나 서나 끊어지지 않는 경지가 계속되면 이어서 잠자다 꾸는 꿈에서도 화두가 지속되는 경지를 체험한다. 심리학으로는 잠재의식에서도 화두 공부가 지속되는 경지이다. 우리가 일체 번뇌망상을 비우려면 앉으나 서나 깨어있는 경지는 물론이고 꿈 꿀 때에도 화두가 일념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번뇌망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유식에서는 7식을 정화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실제 간화선을 제창한 대혜종고(1089~1163)스님은 젊은 시절 각고의 정진 중에 어떤 체험을 하고는 깨쳤다고 생각했다.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만큼 공부한 이가 없다는 자만에 빠져 10여년을 허송세월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 공포에 떨던 중 깨어나 곰곰이 생각하기를 고작 꿈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데 정작 죽음에 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니 등에 식은땀이 났다. 그리하여 〈벽암록〉을 지은 원오 극근 선사를 찾아가 화두를 참구하여 자나 깨나 일여한 경지를 투과하여 확철대오한다.

우리는 대혜선사의 깨달음 과정을 교훈으로 삼아 꿈속에서도 화두가 지속되거나 여여한가를 점검한다면 자기 공부의 단계를 알 수가 있다.

오매일여, 깨달음의 기준

화두선에서 화두가 몽중일여 경계를 돌파하면 자나 깨나 끊어지지 않는 오매일여 경계에 이른다. 오매일여는 화두가 타파되는 깨달음 직전의 마지막 경계이다. 이 오매일여 경지를 백척간두(百尺竿頭), 은산철벽(銀山鐵壁)으로도 표현한다.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이나 〈선문정로〉 등에서 화두가 자나 깨나 지속되는 오매일여를 투과해야 깨친다고 강조한다.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백련암에 주석할 때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깨쳤다고 인가해달라고 찾아 왔다. 처음에는 스님이 직접 만나 공부를 점검하였는데, 화두가 동정일여도 되지 않는 이들이 깨달았다고 큰 소리치는 것을 보고는 직접 만나지 않고 시자를 시켜 "화두 공부가 꿈속에서도 되느냐?" 물어서 그렇다는 사람만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나 견성했다 하는 이들은 성철 스님이 "오매일여를 투과해야 깨친다"는 법문에 대하여 '허무맹랑한 소리'라 비난한다.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화두 참선이 되느냐?"고 힐난한다.

그러나, 성철 스님만 오매일여를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조사로 태고보우 국사나 나옹혜근 왕사의 어록에도 "화두가 타파되려면 오매일여를 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중국 조사로 간화선을 제창한 〈서장〉의 대혜 선사나 〈선요〉의 고봉 선사도 '오매일여'를 깨달음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어째서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화두 공부가 자나 깨나 끊어지지 않아야 깨달음을 이룬다 하였을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잠잘 때의 무의식에서조차도 미세한 번뇌를 완전히 비워야 열반을 성취한 부처라 할 것이다. 범부도 청춘시절에 앉으나 서나 연인 생각으로 잠을 설치기도 하며, 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날 때 복받치는 슬픔으로 잠도 오지 않고 밥 먹는 것도 잊고 며칠을 지새우는 경우도 있다. 범인의 애정도 이럴진대 생사 윤회를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깨달음이라면 자나깨나 한결 같은 공부가 아니고서야 과연 깨쳤다고 할 수 있겠는가?

태백산 선지식 고우 스님은 화두선의 오매일여 경지를 유식의 제8아뢰야식, 무의식을 정화하는 비유로 설명하였다. 〈끝〉

〈불교인재원 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㉓ 사미 라후라 이야기



▶ 한줄요약
목련을 따라 출가한 라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밑으로 출가를 한다. 아직 어린 라후라는 놀기를 좋아해 수행에 게으름을 피웠다. 이에 부처님은 "자랄 시절을 기다리냐"며 꾸중한다.

師弟된 아들…"공부하라" 타이른 부처

어머니 야수다라의 손을 놓고 목련을 따라 아버지 석가모니에게로 떠난 라후라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남은 식구들은 홀로 된 야수다라를 어떻게 달래었을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듣고 아는 이야기보다 〈석보상절〉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전개가 유려하고 드라마틱하다.



그림 · 강병호

정반왕의 야수다라 달래기

정반왕이 야수의 마음을 눅이리라 하시어 즉시 나라의 고관들을 모아서 말씀하셨다. "금륜왕의 아들이 출가하러 떠나니 그대들의 아들 각각 하나씩 보내 나의 손자 라후라를 좇아가게 하라." 하시니 즉시 쉰 명의 아이가 모이거늘 라후라 따라가서 부처께 인사를 드렸다.

'마음을 눅이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았는가. 내가 병약하고 까칠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종종 들었던 말인데 석보상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든다. 뻣뻣하고 굳은 물건이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다. 노여움을 눅이거나 화를 누그러뜨린다는 표현으로 남아 있다.

한편 〈석가보〉에는 '호족(豪族)' 으로 나오는 나라의 고관대작들을 '어비맏네' 라고 하였다. '어비' 는 '아비' 와 같은 뜻이고 '맏' 은 '맏이' 라는 의미이다. '네' 는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무리 중에서 족장 정도 되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 오늘에 되살리고 싶은 또 하나의 등재 단어이다. 요즘 우리에게 참다운 '어비맏이' 가 있는가. 앞으로 '리더' 라고 해야 할 자리에 쓰면 좋겠다.

시아버지 정반왕이 금지옥엽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는 며느리 야수다라를 위하여 나라의 어린 동자 50명을 모아 함께 출가시키는 장면이다. 과연 야수다라의 마음은 위로가 되었을까. 생이별을 해야 할 쉰 쌍의 모자들이 생겨 더욱 애닯지는 않았을까.

예전에 카트만두 파탄에 있는 석가의 후손들이 사는 샤키야족 마을에 갔더니 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나의 친구 '비놋 샤키야' 의 집에 방문했을 때 사미 모습의 사진이 있어 스님이었냐고 물으니 그렇게 대답하였다. 문득 이때부터의 풍습인가 궁금해진다.

부처를 전륜성왕 중 '금륜왕' 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륜성왕은 '금은동철' 사륜왕이 있는데 '금륜왕' 이 가장 수승한 왕이다. 신라왕들 중에도 '진지왕' 을 '금륜태자' 라고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왕 노릇을 못한다고 4년 만에 폐위되었지만 〈삼국유사〉에는 아들 비형랑의 노래에 '성스러운 황제(聖帝)' 로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있다. 〈석보상절〉을 읽다 보면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청실홍실 엮이어 우리말과 역사에 아름다운 수를 놓는 기분이 든다.

라후라 사미가 되다

부처께서 아난이를 시켜서 라후라의 머리를 깎이시니 다른 쉰 명의 아이들도 모두 출가하였다. 부처께서 명하여 사리불을 화상(和尙)이 되게 하고 목련을 사리(闍梨) 삼아서 열 가지 계율을 가르치라 하셨다.

화상은 '가까이 있어서 외우게 하다' 하는 말이니 제자가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경을 배워 외우는 것이니 화상은 스승을 이른다. 사리는 '법' 이라고 하는 말이니 제자의 행적을 바르게 하는 스승이다.

열가지 계율(十戒)은 ①산 것 죽이지 말 것, ②도둑질 하지 말 것, ③음란하지 말 것, ④거짓말 하지 말 것, ⑤술과 고기 먹지 말 것, ⑥몸에 향과 기름 바르고 화만과 영락으로 꾸미지 말 것, ⑦노래와 춤추지 말 것, ⑧높은 평상에 앉지 말 것, ⑨먹을 때 아닌 때에 밥 먹지 말 것, ⑩금은보배 잡지 말 것이다.

화상은 경전을 가르치고 사리는 계율을 가르치는 스승임을 알 수 있다. 부처의 사촌동생이자 다문제일 제자인 아난이 라후라의 머리를 직접 깎아 출가시키고 지혜제일 사리불이 스승이 되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신통제일의 목련은 라후라를 어머니 야수다라에게서 데리고 온 부처의 제자로서 계율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다.

무엇보다 십계는 우리가 지키는 '불자오계' 에 다섯 가지 계율이 더해진 것인데 수행자로서 가무가 금지되고 몸단장과 금붙이를 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화만은 꽃다발이요 영락은 목걸이다. 주로 관세음보살 같은 보살을 장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때가 아닐 때 밥 먹지 말 것이 눈에 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염두에 두어야 할 항목이다. 〈석보상절〉 3권 '사문유관' 에서 생로병사 중 병의 원인이 입의 번뇌를 못 참아

> 목련을 따라 출가한 라후라
> 놀기 좋아해 수행에 게으름
> 스승과 제자가 된 아들에게
> "자랄시절 기다리냐"고 꾸중

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병이 든다는 구절이 생각나는 경구이다.

놀기를 좋아하는 라후라

라운(라후라)이 어려서 놀기를 즐겨 법 듣기를 싫어하거든 부처께서 자주 타이르셔도 따르지 아니 하였다. 나중에 부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부처 만남이 어려우며 법 듣는 일이 어려운데 네가 이제 사람의 몸을 얻어 부처를 만나고 있으면서 어찌 게을러 법을 듣지 않느냐."

라후라가 사뢰었다. "부처의 법이 정미하여 어린 아이가 어떻게 듣겠사옵니까. 전에 자주 들었던 말은 즉시 도로 잊어 벅찰 뿐이니 이제 어릴 적에는 아직 마음껏 놀다가 자라면 가히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무상하여 몸을 믿지 못할 것이니 네 목숨을 믿어 자랄 시절을 기다리느냐"하시고 다시 설법하시니 라후라의 마음이 열려 이해하게 되었다.

라후라가 출가한 것이 부처의 나이 서른 셋이니 주나라 목왕 7년 병인이다.

이 글을 읽으며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석가모니라 할 지라도 '자식에게 대해서는 똑같구나' 라는 동질감을 느낀다. 라후라가 누구인가. 야수다라의 말솜씨를 그대로 빼다 박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아닌가. 사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데 아버지 부처는 그저 수행자로만 만들려 한다. 라후라의 이야기에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있는가.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 부처의 설법에 라후라도 깨닫고 정진해 '밀행제일' 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일백사십육장

야수를 기쁘게 하리라 정반왕은 쉰 명의 아이를 출가시키니 시아버지의 선심(善心)이 어떠하시니 라운이 시비를 가리거늘 다시 설법하시니 세존의 자비로운 마음이 어떠하시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불교의 스승과 제자가 된다. 시대를 뛰어넘어 이 인간적인 대화가 정말 흥미진진하다. 부처도 말 안 듣는 아들에게는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다. 자주 타일러도 듣지 않았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는다. 어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리오. 부모가 떠나고서야 그리고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되짚어 보게 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범부의 인생일진대 부처는 아들을 기다려 주고 감복시켜 알아듣게 한다.

이즈음 코로나 5차 대유행으로 몸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피폐해져 가족 간의 극단적인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2년 동안 강제된 격리 생활 속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절실히 자각하게 된다. 화가 난다고 감정 조절을 못해 사소한 일로 살인 사건이 다반사가 되어가는 세상에 오늘의 이 사미가 지켜야 할 십계와 부자간의 대화법은 당장 실천할 행동강령이다. 2600년 전 부처와 라후라가 전하는 오늘의 말씀이다.

연재를 마치며

이제 1년 동안 〈석보상절〉 3권과 〈석보상절〉 6권 맛보기를 함께 해주신 독자들께 감사를 드릴 시간이다. 〈석보상절〉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24권 중 10권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첫 번째 책이 우리가 함께 읽은 3권이다. 팔상도 중 '사문유관, 유성출가, 설산수도' 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4권과 5권은 전해지지 않지만 '수하항마' 와 '초전법륜' 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을 것이다. 지금 읽은 6권은 '녹원전법'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후라 출가이야기' 다음에는 '대가섭의 출가, 기원정사 이야기, 승만경 이야기, 수달의 이야기, 대집경 · 방등경 · 반야경 이야기' 가 촘촘히 들어 있다.

부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무상하여 몸을 믿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쉽지만 내가 아니라도 이제 누군가에 의하여 〈석보상절〉의 시절인연은 이어질 것이다.

'훈민정음' 만이 전가의 보도인 때는 지났다. 글자를 가진 민족은 많았으나 우리처럼 진화 발전한 나라는 드물다. 아직 우리에게는 주옥같은 훈민정음 글자로 씌어진 〈석보상절〉 아홉 권과 〈월인석보〉 스무 권이 남아있다. 이것을 양날개 삼아 언젠가 반드시 한류가 21세기의 세계 문예 사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석보상절〉이 조선 불교경전으로서 한문, 산스크리트, 팔리어 경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귀하게 여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기대한다. 그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의 몫이다. 〈끝〉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AIR BLASTING
BY WOOD POWDER
에어대패 鉋
목분(木粉)을 이용한
신기술 건식공법!

✻ 목구조 건축물 복원의 신기술 "우드(목분)공법"은 원형복원과 목재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특화개발된 신공법입니다
✻ 문화재, 사찰, 단청, 한옥, 목구조물, 조경시설물, 특수건축물, 금속이나 비금속, 수지, 석재 등의 소재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년옻칠 漆
천연 옻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인증 천년옻칠

✻ 해충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방충, 방의, 방부)
✻ 목재의 크랙 및 변색방지 (방수성/방오성)
✻ 목재의 고유한색상을 더욱아름답게 유지합니다.
✻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통기성)

동화특수산업(주)
031-451-6232 / 010-3747-2111

불기 2566(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축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6(2022)년 임인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jabi2018@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다시보는 불모지

❼ 불교 애니메이션 A TO Z



사진 왼쪽부터 한국에서도 극장 개봉된 애니메이션 '붓다: 위대한 여정' 포스터,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표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한 장면, 마츠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99'의 한 장면. 모두 불교 소재거나 불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이다.

애니 속 '불교 코드' 찾아보실래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의 신성민입니다.

연말연시인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서 힘드시죠.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볼 만한 불교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불교 애니메이션을 구분해보면 대략 불교 소재 애니메이션이나 불교적이거나 불교로 해석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불교 소재 애니메이션을 꼽자면 단연 이 작품이죠. 바로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입니다.

데즈카 오사무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주소년 아톰〉으로 잘 알려졌죠. 40대 이상이라면 TV서 만났을 〈밀림의 왕자 레오(원제: 정글대제)〉 〈사파이어 왕자(원제: 리본의 기사)〉 등의 만화영화가 모두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입니다.

데스카 오사무가 이 같은 소년만화만 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데스카 오사무는 한 때 의학도였던 관계로 〈블랙잭〉과 같은 의학만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불교에 심취해 〈붓다〉 〈불새〉와 같은 불교 소재, 불교적 만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붓다〉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서도 개봉한 바 있죠. 2013년에는 〈붓다: 싯다르타 왕자의 모험〉이, 2015년에는 〈붓다: 위대한 여정〉 이렇게 두 편이 개봉됐는데요. 1편의 원제는 '붉은 사막이여 아름답게' 였는데 한국은 '싯다르타 왕자의 모험'으로 바뀌었죠. 요즘 말로 작명 센스가 참 괴랄하죠.

어쨌든 원래 3부작이었다고 하는데 흥행 성적이 썩 좋지 않았는지 3편 이야기가 없네요.

원작 스토리야 다 아는 부분이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데즈카 오사무 원작의 느낌이 크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1편은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없지만 2편 '위대한 여정'은 네이버 등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도 정식 발간된 만화 〈붓다〉 전집을 읽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 중 〈붓다〉보다 더 대단한 작품은 만화 〈불새〉인데요. 그의 마지막 작품인 〈불새〉의 주제는 인간의 삶입니다.

작품은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가 불멸의 존재인 〈불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루고 있죠. 시간과 공간도 고대부터 미래시대까지 지구와 우주를 오가며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작품 속 불새가 인간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불새를 발견한 이들은 때로는 영생을 얻고자 때로는 권력이나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지식을 위해 불새를 쫓고 제각기 자신들의 운명과 마주합니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흐트러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어가는 다양한 일들이 불새라는 존재와 엮여서 펼쳐지며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애니메이션으로 극장판 〈불새: 봉황편〉이 있는데 한국에는 정식 개봉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네요.

이제 불교로 해석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해볼게요. 20세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꼽으라면 단연 이 사람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만으로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복귀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니 태클은 사양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말로 거장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이 작품은 매우 불교적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죠.

낯선 세계에 홀로 남겨진 치히로가 마녀 유바바를 만나 이름을 빼앗기고 일하게 되는 곳은 '유옥'입니다.

유옥(油屋), 우리말로는 '기름집'이죠. 다시 말해 '불타는 집'입니다. 이는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죠. 화택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우비고뇌(憂悲苦惱)로 점철된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을 태우는 불길은 지배욕이나 소유욕과 같은 '욕망'과 '집착'입니다.

유옥은 신들이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세속적 공간이죠. 도마뱀 고기에 환장하고 사금을 보며 열광하는 종업원과 항상 돈을 세는 유바바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은 치히로입니다. 목욕탕의 때를 벗기고 약수를 길어오죠. 오물신을 강의 신으로 정화시킨 것도 치히로였죠.

작품의 터닝포인트는 치히로가 유바바의 쌍둥이 언니 제니바를 만나면서입니다. 제니바를 만나기 위해서는 갔으나 오지 않는 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 기차의 이름은 '중도(中道)'입니다. '중도' 열차의 종착역엔 현인 제니바가 있었죠.

여기서 치히로는 제니바에게 센이 아닌 자신의 본명을 말합니다. 그러자 제니바는 좋은 이름이라며 소중히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리면 유바바에 자신의 이름 '치히로'를 빼앗기고 '센'이 됩니다. 치히로가 한문으로는 '일천 천(千)'에 '찾을 심(尋)'인데 유바바는 '찾을 심'을 빼죠.

자신의 이름은 곧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이유죠. 나를 잊지 않고 본래의 나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치히로라는 어린 소녀는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미야지키 하야오 작품은 자본주의나 문명비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불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령공주〉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이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은 대부분 넷플릭스에 볼 수 있으니 찾아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밖에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곤 사토시의 〈파프리카〉도 불교적인 작품입니다. 곤 사토시는 지금은 작고해 더 작품이 나오지 않지만 〈퍼펙트 블루〉, 〈망상대리인〉도 불교적 해석이 가능한 작품들이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은 어릴 적에 보았던 〈은하철도 999〉입니다. 〈은하철도 999〉도 불교적 해석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기계인간이 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여행을 거듭하는 철이와 메텔의 여정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의 구도기와 흡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이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현실 앞에 분노하고 스스로 레지스탕스가 돼서 기계제국과 싸워 나가죠.

결국 철이는 자진해서 기계인간이 된 아버지 파우스트와 마지막 일전을 벌이고 승리하며 마무리됩니다. 여정 끝 철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청년으로 성장하죠.

소개할 작품은 많지만 시간과 능력에 한계가 적지 않네요.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불모지는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콘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끝〉

'센과 치히로' 주무대 유옥, '삼계화택' 의미해
터닝포인트인 늪지대로 가는 열차 이름 '中道'
'붓다' '은하철도999' 등도 불교 애니 분류 가능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KBS '6시 내고향' TV방영





〈법화경〉 사경만 해도 도솔천에 태어나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㊻ 법화경의 공덕

"세존이시여, 말세의 혼탁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이 경전을 구하는 자나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자, 사경하는 자들이 이 〈법화경〉의 이치를 수행하려 한다면, 21일 동안을 응당히 일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21일이 지나고 나면 제가 여섯 개의 이빨을 지닌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없는 보살들에 에워싸여 중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저의 몸을 그 사람 앞에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이롭게 해주며, 기쁘게 해주겠으며, 또 다라니주를 설해주겠습니다.

그가 이 다라니주를 얻으면 아무도 그의 마음을 깨뜨릴 수 없게 되며, 저도 이 사람을 항상 수호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의 이 다라니주를 설하도록 허락하소서.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다라니를 듣는다면 보현의 신통력을 알 것이며, 〈법화경〉을 염부제에 유포하여 이를 받아 지니는 자가 있으면 이는 모두 보현의 위신력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 바르게 기억하며 그 뜻을 이해하여 설한 그대로 수행한다면 이 사람은 보현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한량없고 가없는 부처님들 밑에서 선근을 깊이 심은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사경만 하여도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응당 도리천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팔만사천의 천녀들이 갖가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몰려와 영접해 줄 것이며, 그 사람은 곧 칠보의 관을 쓰고 채녀들 가운데 즐겁게 있게 될 것이거늘 하물며 이를 받아 지녀 읽고 외워 바르게 기억하며 그 뜻을 이해하여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 지녀 읽고 외워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가 죽을 때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손을 내밀어 공포를 없애 줄 것이며,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 곧 미륵보살이 삼십이상의 상호를 갖추고 큰보살들의 무리에 에워싸여 백천만억 천녀의 권속을 거느리고 계시는 그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라면 마땅히 일심으로 스스로 쓰거나 남들도 쓰게 하며, 받아 지녀 읽고 외워 바르게 기억하며 설한 그대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부터 신통력으로 이 경을 수호하여 여래가 멸도하신 뒤 염부제 안에서 널리 유포해 끊어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오탁악세의 사부대중이 〈법화경〉을 받아 지닐 때의 지침을 밝히고 다라니를 설하여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말한다. 다라니를 설한다는 것은 불 · 보살이 가진 주술적인 신비한 힘으로 수행자에게 가피(加被)를 입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간을 21일로 정해 정진하면 육아백상(六牙白象)을 타고 와 법화행자(法華行者)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다. 이는 수행 중에 나타나는 마장(魔障)을 없애 주겠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도고마성(都賈魔盛)이라 하여 도가 높아질수록 마군의 장애가 치성해진다고 하였다. 21일 정진이란 이러한 마장을 없애기 위한 참회기도 같은 것을 말한다. 원각경에서도 삼관(三觀) 이십오륜(二十五輪)의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서 120일, 100일, 80일의 세 기간을 근기에 맞춰 정해 참회기도 등을 해야 한다고 경문에서 밝혀 놓았다. 〈능엄경〉은 전체 10권 가운데 9권과 10권이 변마장(辨魔章)이며, 기신론에서도 지관을 닦을 때 나타나는 마경(魔境)을 설하고 있다. 정법을 수행하다가 마경에 끌려가면 사법(邪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설한 내용의 특이한 점은 〈법화경〉 수지가 보현행 실천이라고 밝힌 점과 〈법화경〉을 사경만 하여도 미륵정토인 도솔천에 태어나게 된다고 한 점이다. 보현행이란 보살도를 실천 완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화엄경〉에서는 10종 광대행원을 설하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이 이미 보살을 가르치는 법문이라고 경문에서 명시해 놓았다. 이승(二乘)의 근기는 〈법화경〉을 수지 못한다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경전을 악보처럼, 지계를 연주하듯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㊻ 지계청정(持戒淸淨)과 무애행(無碍行)

누구나 한 번쯤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매료되어 악기를 배운 적이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막연히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배우기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악기를 연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를 배울 경우, 처음에는 제대로 소리를 내기조차 힘들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음정이나 박자가 틀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그럴 때마다 멋지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만 바이올린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계(戒)를 받아서 지키는 것도 악기를 처음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계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했더라도 그런 행동들이 익숙해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늘 자기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간혹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왜 나만 계를 지키느라 애쓰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이럴 때마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악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불교 경전을 보면서 점검해보아야 한다. 불교 경전에는 계를 어겼을 때 받는 과보와 계를 지켰을 때 얻는 공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물론 계를 지키는 목적이 공덕을 쌓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응보를 믿는 불자라면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계를 지키기 위해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간혹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반성해서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초기불교에서는 불교도의 모범이 되는 출가자에게는 재가자보다 철저히 계를 지킬 것이 요구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음계(不婬戒)의 준수였다. 이런 까닭에 초기불교에서 지계청정(持戒淸淨)은 범행(梵行)을 닦는 것이었다. 이 계를 지키는 수행자라면 이성을 눈으로 보거나 가까이하지 않을 것이고, 이성과 대화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수행자가 그 계에 얽매여서 자신을 속박하면 할수록 꿈속에서 이성의 모습을 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꿈속에서 이성을 탐닉하기도 할 것이다. 이럴 때마다 수행자는 자신의 번뇌를 억제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겠지만,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날뛰는 망념을 끊어 없애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승불교의 경론에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망념을 끊어 없애야만 번뇌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한다. 즉, 진정한 불음계는 눈앞에 이성이 있어도 애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욕에 구속되지도 속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업식(業識)의 훈습, 즉 감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훈습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행을 쌓은 수행자가 아니라면 끊어 없앨 수 없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수행을 계속해서 십지(十地)의 경지에 들어간 보살이라야 끊어 없앨 수 있다. 이 경지에 들어간 보살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서 형식적인 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계청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뇌리에 박힌 선승들의 무애행(無碍行)도 지계(持戒)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속박되지 않은 '걸림 없는 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의 가식이 없어야만 걸림 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능숙한 연주자가 악보 없이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㉒ 성불을 이루는 지관수행

무분별 진여본성으로 되돌아가야

불자 여러분! 〈대승기신론〉에서도 지관수행을 권장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지관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止)를 통해 일념상응의 경지에서 무분별지를 얻고, 관(觀)을 통해 생멸하는 현상세계에 대한 후득지(後得智)를 얻어 중생구제의 자비행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고 이를 통해 범부는 생사고(生死苦)를 벗어나고 이승은 열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다."고 지관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지관수행은 첫째, 사마타수행을 통해 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경계상을 그치고[止] 다스려서 일심(一心)으로 돌아가 분별없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것[無分別智]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계들의 인연생멸상을 관찰하여 그 대상의 실재성(實在性)과 무상-고-무아(無常-苦-無我)를 철견(喆見)함으로써 일심(一心)을 증득[後得智]하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육조 혜능 스님도 지관(止觀)수행의 '지'와 '관'을 '정(定)'과 '혜(慧)'로 대비하여, 지(止)를 정(定)으로 표현하고 관(觀)을 혜(慧)로 표현하여서 '지관쌍수' 또는 '정혜쌍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혜능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정혜일치(定慧一致)'라고 표현하며 정과 혜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과 혜가 따로 떼어서 실천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또한 북종선의 대통 신수대사 역시도 '정혜균등(定慧均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수대사는 정혜쌍수의 선 수행을 통해야만 보살은 열반에 탐하지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심부동(心不動)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타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은 떨어질 수 없는 불이(不二)관계에 속해 있으며, 궁극적 의미로는 진여본성의 체상(體相)에서 본각본적본정(本覺本寂本淨)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마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수행, 즉 지관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무명에 가려진 중생들은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참 나의 진여본성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법의 참모습이 바로 자신임을 알지 못하고서 무명으로 망념을 일으켜 허망한 경계에 집착하며 갈애와 애욕을 일으켜 악업을 짓고 그 과보로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사윤회의 이 고통스런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여본성에 상응하여 본래 갖추어진 자연지혜를 발현시켜서 무명과 미혹을 깨뜨리고 무분별의 진여본성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불교의 신앙을 통해 현실적인 괴로움을 벗어나 복락을 얻는 것도 불교의 현실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이유가 바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무명속에 가려진 상태로 세상을 살면 꿈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행무상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일시적이고 유한적인 행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상락아정의 행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지관수행을 통해 망념과 분별을 멈추고 진여본성과 상응할 수 있는 지관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진여본성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음을 일으켜 망념과 분별을 일으키면 진여본성과 곧바로 어긋나게 됩니다. 망심과 망경계에 집착말고 그대로 무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곧바로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드시 눈 밝은 명안종사를 만나 지관수행의 원리와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배워서 올바른 지관수행을 실천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십시오. 지금까지 실천해온 불교신앙이 비록 현실적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을 위한 지관수행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일일시호일

유방암이 앗아간 소박한 꿈…
치료만이 희망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우샤니씨 유방암으로 가슴 절제
전이 가능성 높아 항암치료 필수지만 매회 120만원은 부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8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010-3586-6091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한마음으로 오래 계실분

010-4766-3200

사찰 처사(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010-9157-2276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제주도(육각사)

010-3753-7844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8908-0488

각종비법 전수원 (各種秘法傳修院)

귀문 비법 신공 鬼門秘法神功 와룡 비법 신공 臥龍秘法神功
육효 비법 신공 六爻秘法神功 택일 비법 신공 伕日秘法神功
풍수 비법 신공 風水秘法神功 지지 비법 신공 知止秘法神功

장애스님, 보살 무료 Dalm 역학대통령 ▼ 최다목록

남녀 4~50대 암자에서 수학 인도 기다립니다. 02-904-3375

뭐든지 성취되는

기도비법을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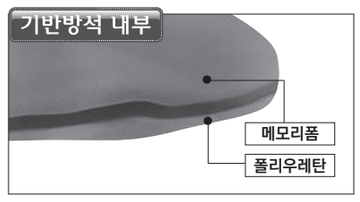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8호 | 18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가람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산읍
●건물 : 2층, 목조 법당
●대지 : 540평
●건평 : 3동 2백평, 단청 완비
●가액 : 13억

054-977-6611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학원 및 사찰터안내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지 : 약 256평
●우동 자이아파트 단지 옆 자명요양병원 앞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부지 : 530평(대지 24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토지(전) : 건축 가능
●가액 : 2억 5천(절충가능)

010-3871-2210

사 찰 터 안 내

●위치 : 밀양시 산내면 희곡리
●대지 : 약 2,100평
●전망이 아주 좋음
●가액 : 5억

010-3173-5151

포 교 원 안 내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3층 건물 / 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 / 약사부처님 3자반 / 일광월광 / 호신불 약사관음 108불 / 영단 / 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보 1천만원 / 월 70만원(시설비 2천5백만)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010-7476-9898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토지 : 총평수 2,477 평중 대지 1,000평
●건물 : 법당 : 31평 → 목조, 단청
큰 요사채 : 68평 → 목조, 단청
작은 요사 : 14.5평 → 링가 2중벽
공중화장실 : 5.5평 남녀분리 수세식
●식수 : 지하암반수 (수질 우수), 약수샘 있음
●개울 : 사찰 전용 수련대회 천막칠땅 개울과 인접함 실개천 4계절 흐름, 마당엔 화강석 수각 있음
●마당 : 네모반듯, 관상수, 축대 : 화강암
●도로 : 절 입구까지 아스팔트 / 주차장 : 대형버스 회전됨
●대중 교통편 : KTX : 천안아산역까지 승용차로 30분 소요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 38분 소요
온양역 : 승용차 20분 소요
서울, 의정부, 인천행 전철 운행
●경관 : 사면이 산이라 강원도 산속같다고들 함
●가액 : 24억 (대출금 5억 포함)
※ 집기물은 법당, 주방것은 양도 하겠음.

문의전화 010-3757-5944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360평(국유지 1만평 사용)+사유지 500평 무상사용 ●법당 : (요사채+회신형 인테리어), 극락전(목조기와신축)
●가액 : 1억 2천만원(3억 5천 대출승계안고)
●조건 : 모든석불포함(석불조성 1억 5천만원)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숲 5천그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 공사 전주시장 승인 준공예정

010-9647-0723

사찰 안내

●대지 1,700평, 법당 60평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가액 : 6억 5천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부지 : 5,823평(종교용지, 대지 1,700평 포함) 건물 : 3개동(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토지, 건물 : 분할가능
●가액 : 21억(분할시 상단 15억, 하단 7억)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2층 42평, 시설금 1천2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5백만, 월세 30만
●법당, 요사채(2),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및 공사, 판넬, 도배, 기타 시설은 무료)
●5년전 인수금액 그대로임

주지 무진 010-3049-5816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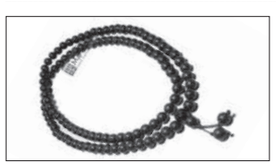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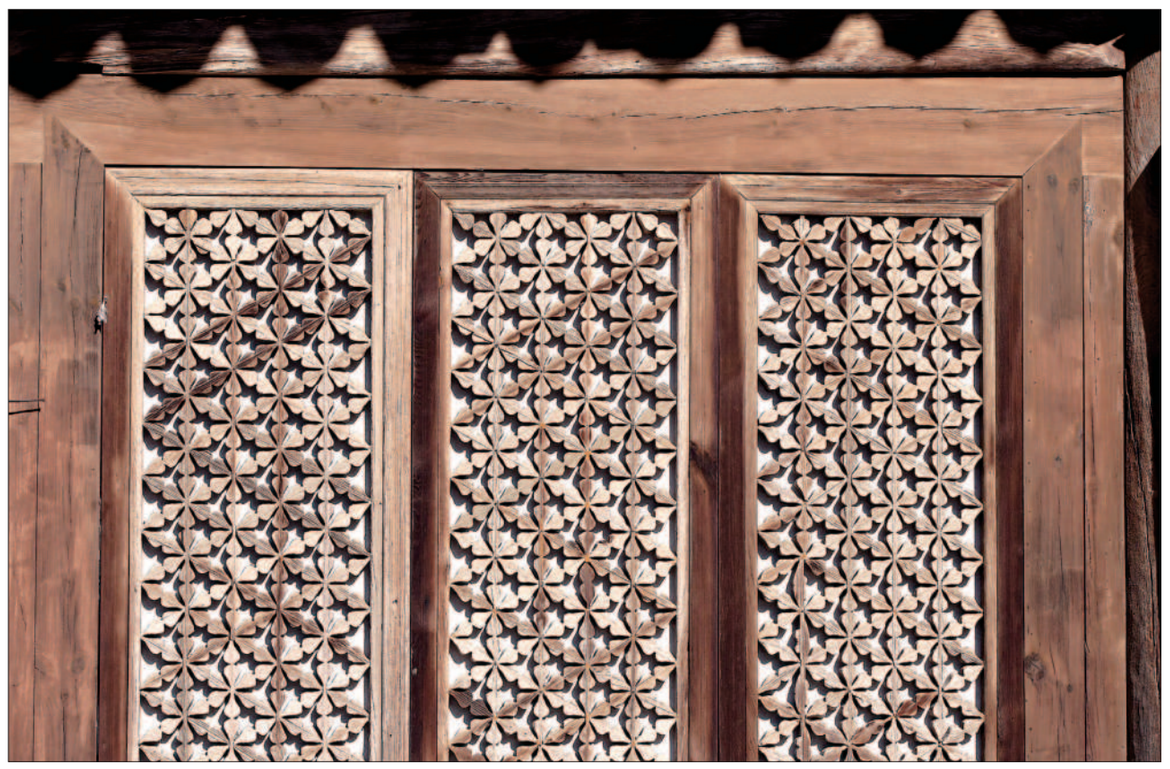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감정의 공한 본질

우리는 분노를 만나지 못해요. 슬픔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불안을 직면하지 못해요. 화를 내거나 화를 참아요. 슬픔에 빠지거나 슬픔을 외면해요. 불안해하거나 불안으로부터 도망가요. 막상 분노를 만나면 그것은 그냥 에너지예요. 명료하고 힘을 주는 에너지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상 슬픔을 알아차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느낌은 좋지 않지만 해가 되지 않아요. 막상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면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요. 불쾌하지만 죽지 않아요. 분노 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분노를 거부하는 거예요. 슬픔 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슬픔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안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불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정을 알아차려보면 감정을 알게 되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경험을 쌓게 되어요. 더 많은 감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요. 감정의 힘이 점점 약해져요.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감정을 허용하는 겁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허용하거나 마음에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몸은 릴렉스하고 생각은 그냥 둡니다.

모든 감정은 동등하며 그냥 풀어야 할 에너지 입니다. 궁극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감정의 공한 본질을 허용하십시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㉒ 발효과학의 절정, 흑차

보글보글 끓이는 흑차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1년이 힘들었어도 12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회향하는 마음으로 차를 끓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차를 닮았다하여 가인여차(佳人如茶)라고 합니다. 맑음, 푸르름도 아름답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감미로워지고 더욱 몸을 이롭게 하는 흑차, 흑차의 깊이 있는 매력이 아름다운 사람의 품성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의 역사에서 6대 다류는 청나라 때에 이미 갖춰졌지만 녹, 백, 청, 황, 홍, 흑, 차를 우린 수색의 6가지 빛깔로 차를 분류하는 6대다류 분류법은 1970년대에 안휘농대의 차전문가 천추안(陳椽)이 제시하여 표준화한 것입니다.

흑차는 차를 우린 수색이 너무 짙어서, 커피처럼 진한 흑갈색을 띠어서 흑차(Dark Tea)라고 부릅니다. 흑차의 수색이 이렇게 짙은 까닭은 후발효차이기 때문입니다. 후발효차는 차가 완성된 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발효하는 차로서, 발효과학의 절정을 보여주는 차입니다.

후발효차 흑차는 범위가 넓습니다. 윈난성의 보이차도 흑차의 일종이지만 독립적으로 너무 발달하여 흑차의 범주에서는 별도로 논의하곤 합니다. 쓰촨성의 야안강전, 광시성의 육보차, 후난성의 천량차 등이 대표적인 흑차입니다.

추운 겨울에 폭폭 끓여 마시는 흑차는 추위를 물리치고 체온을 높이며 신진대사를 돕는 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4배 증가합니다. 특히 육류와 밀가루와 버터를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 차는 필수입니다.

"3일을 굶을지언정 차는 꼭 마셔야 한다. 차를 하루 못 마시면 체하고 3일을 못 마시면 병이 난다." 티베트인들에게 흑차는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티베트인은 춥고 건조한 내륙의 고산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까닭에 야크, 양, 염소 등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잠바라고 부르는 보리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흑차에 버터와 소금을 녹여 끓인 수유차를 마십니다. 흑차는 수유차의 주재료이며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활필수품이었기에 쓰촨성의 야안을 통해 들어오는 흑차를 아예 티베트차라고 불렀습니다.

명나라 때에 〈엄차의(嚴茶議)〉 기록에 의하면, '차라는 물건은 서역 토번 지역에서는 신앙의 대상이다. 육류를 주로 먹기 때문에 차를 마시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되고, 청과맥이 주식이라 차를 마시지 않으면 냉함을 달랠 수 없다. 기후조건이 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차는 산림초목의 잎사귀이지만 국가정치의 근본이 될 만큼 중요하니 나라를 다스리는 군자로서 차를 귀중히 생각하고 특별히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발효과학의 절정, 흑차.

티베트와 중국이 차와 말을 교역한 차마호시(茶馬互市)의 역사는 천 년이 훨씬 넘습니다. 중국기록에 의하면 서기 641년 당 태종 때에 문성공주가 토번으로 시집을 가면서 차를 가져가 전파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티베트인은 훨씬 오래전부터 차를 마셔왔을 것입니다. 중국의 차는 차마고도를 따라 티베트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경로는 쓰촨성에서 출발하여 야안을 통과해 티베트 라싸 등 대도시로 들어오는 야안흑차 로드, 한 경로는 윈난성에서 출발하여 티베트로 들어오는 보이차/흑차 로드입니다.

쓰촨성 야안(雅安)은 흑차의 원산지이며 티베트 차마호시의 가장 중요한 교역지입니다. 중국 역대 왕조는 야안을 티베트의 전문 차 공급지로 정하고 생산량의 거의 전부를 티베트에 공급했습니다. 야안은 쓰촨분지 서쪽 끝 고산지대에 위치하여 티베트와 중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변소차(邊銷茶)라는 특이한 차의 이름은 변경지역에서 거래되는 차라는 뜻으로 청나라 건륭황제 때에만 해도 수천 톤의 차가 야안에서 티베트로 수출되었습니다.

쓰촨성 야안의 흑차는 강전(康磚), 금첨(金尖), 강첨((康尖)으로 세분합니다. 강전의 규격은 500g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벽돌모양의 전차(磚茶)입니다. 포장지에는 중국어와 티베트어가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강전은 후발효가 중요하기 때문에 찻잎을 강하게 긴압하지 않고 춘포(春包)라고 해서 느슨하게 긴압하여 포장합니다.

오늘 선택한 흑차는 1986 중차패 강전입니다. 35년의 세월을 건너 차탁 앞에 놓인 흑차 강전, 80년대에 포장하여 손만 대면 찢어질 듯 거친 옛날 종이 속에 흑갈색의 차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986년도에 쓰촨과 윈난 경계에 있는 차창에서 윈난의 좋은 찻잎으로 강전을 만들어 야안 흑차 로드를 통해 라싸로 수출했고 라싸의 한 사원에서 이 차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귀한 인연으로 라싸의 사원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잇다it茶의 차실에 자리하게 되었으니 그 오고 간 시간과 공간 앞에 먹먹할 따름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결국은 만나게 되나봅니다.

차 한 편도 이렇거늘 사람은 더하겠지요. 먼 전생 언젠가에 잊지 못할 사랑과 그리움을 남겼기에 세월을 건너 지금 생에서 만나는 것이겠지요. 펼쳐진 인연 앞에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12월을 마무리합니다.

가만히 1986 중차패 강전을 바라봅니다. 이 마르고 거친 찻잎이 과연 어떤 품을 내어줄까요. 강전은 한 두 시간 낮은 불로 뭉근하게 오래 끓여야 비로소 자기를 열어 줍니다. 겨울이면 차회를 시작할 때에 미리 화로에 강전을 앉힙니다. 물 1L에 강전 5g을 넣고 낮은 불로 끓입니다.

그리고 차회를 마칠 무렵에 회향차로 강전을 나누어 마십니다. 젖은 낙엽 같은 차향이 어느새 시원한 대추향으로 바뀌고, 잘 끓인 강전 한 잔이면 앞에서 마신 명차(名茶)들을 잊을 만큼 감동을 받습니다. 역시 세월을 건넌 아름다움입니다.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끝〉

〈잇다it茶 대표〉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22 대현 스님 유고집 '아름답게 가는 길'



▶ 한줄 요약
생의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하다.

생의 애착은 윤회의 씨앗



대현(大玄) 스님은…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남산정일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만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었다. 그러던 중 '위빠사나'를 만나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했다.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서 정진하던 중인 2020년 만성폐렴을 진단받고, 단식 수행을 통해 열반의 길을 열겠다고 결심했다. 〈대반열반경〉을 위주로 공부하고, 이 공부 내용과 스님 자신의 마지막 기록을 한데 엮어 〈아름답게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해 줄 것을 유언했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 강설〉, 〈깨침 아리랑〉이 있으며,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를 기획, 감수했다.



"업연에 끌리어 오는 줄 모르고 온 인생이지만 갈 때는 알아차림으로 한 생각 챙기면서 가는 줄 알고 가고 싶습니다. 올 때는 비록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며 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의 봄 · 여름 · 가을을 지내고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접어들게 되면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화두가 찾아들게 된다. 닥쳐오는 죽음을 어떻게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고해를 통과해야 할 숙제로 받은 이상 누구나 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자들'이다. 누구에게나 닥치게 되는 죽음에 대한 마지막 회향이야말로 그가 닦아온 인생 전체가 투영되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스물두 살에 장성 백양사로 출가한 이래 남산정일(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한 대현 스님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 중이던 2020년 봄 만성폐렴을 진단받는다. 결핵균과 사촌격인 병균이 검출되었는데, 치료약이 매우 독하여 소화기능이 약한 스님으로서는 약을 복용하기조차 힘들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며,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스님은 정말 두려움 없이 아름답게 가고 싶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이 묻자, 의사로부터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폐가 석화현상이 되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체중이 점점 줄어들어 2, 3년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세 시대에 이제 겨우 세수 75세인 스님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고심하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란, 살아오는 동안 인연이 지어진 모든 분들과 기꺼이 작별할 줄 알고 마지막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삶의 예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죽고 사는 것까지도 벗어나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의 시작이다. …이 세상 올 때는 비록 오는 줄 모르고 왔지만, 갈 때는 알아차림으로 가는 줄 알고 가고 싶다. 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면서 가고 싶다. 수행자답게 굳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단식 수행으로 열반의 길을 선택하다

삼십대 젊은 날 단식 수행을 한 적이 있는 스님은 꿈을 꾸어도 꿈 속의 희로애락에 빠져들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저녁부터 눈을 뜨는 아침까지도 화두의정이 끊임없이 어어졌던 경험을 떠올리고는, 단식 수행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작정한다.

마지막으로 맞은 어느 봄날에는 마당가 화단에 꽃씨를 뿌리고 꽃을 사다가 심었다. 뒤안에는 산과 들에서 야생화를 캐다가 심었다. 마당의 잔디밭 잡초도 열심히 제거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신 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던 스님은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대반열반경〉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영적 힘을 지닌 부처님의 삶과 수행에 다시 한 번 큰 감동을 받았다.

세수 75세에 난치병 판정
연명치료 거부, 단식단행
수행에 대한 고별사 남겨

스님은 〈율장〉과 〈대념처경〉 등 다른 불경과 함께 엮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정리한다. 이후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 당신이 정리한 불경의 대의와 함께 당신이 장차 기록으로 남길 '단식 수행을 통한 열반의 길'을 한데 엮어서 당신의 입적 이후 49재 이전에 책으로 출간해 줄 것을 유언한다.

영정 사진과 수의까지 손수 준비해 놓고 2021년 8월 25일 단식을 시작한 스님은, 주변 사람들이 행여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불상사(?)를 염려한 끝에 단식 13일째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를 기록으로 남긴다.

"내가 집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숨을 쉬고 있든 쉬지 않고 있든,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조심스레 안아서 잠자리 시트에 눕혀두면, 조용히 숨을 거둘 것이오. 숨을 거두어 임종했다는 확신이 들면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검시관과 함께 와서 본 뒤 그들이 사망확인진단서를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단식 19일째, 스님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며 고요한 우주의 평화스러운 침묵에 전율을 느낀다. 무기의 혼침에 빠지지 않고 성성히 한 생각을 챙긴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단식수행법을 포기하여 병원을 찾는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진통제 영양제로 고통을 잠재우는 일과 연명의 기약 없는 시간, 막대한 치료비, 꼴불견의 죽음 뿐일 것이다. 그러니, 고통이 더 따르고 힘들더라도 내 갈 길은 이 길뿐이다. 누가 안타까워하여 꼬일지라도 그를 따라서는 안 된다."

스님은 단식 29일 만인 9월 22일 오후 3시 무렵, 입적했다.

대현 스님, 고별사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중을 만들어 주시어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보람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은 은사 스님입니다. 은사 스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 은혜, 세세생생에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심이 부족해 문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제들은 저를 사형으로 대접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베푼 바가 없습니다. 이제야 내 자신이 인색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님은 훌륭한 수행력을 갖추지 못했고 덕망도 없는 저에게 과분한 대우를 해주시었습니다. 무거운 시은만 지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잘 죽는 죽음일까?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 과정이 두렵습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링거액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숨만 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도인들은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죽고, 죽기를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늘 신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몸은 공(空)하여 거짓 나이니 애착할 게 없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오니 어떻게 죽어야 잘 한 죽음일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성취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요, 만약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알아차림으로 한 생각 챙기면서 저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 한 생각은 내세로 연결되어 금생의 수행력과 원력 따라 다음에도 수행자의 길을 걸어 쉽게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초학 시절 보름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식을 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였더니 정신이 맑아져 화두가 성성적적 끊어짐이 없이 밤낮 이어짐을 체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이 세상 떠날 때 단식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구나!' 하였습니다.

지금 내 나이는 칠순이 훨씬 지났습니다. 백세까지 사는 세상이니 한참 못 미치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래 약골로 태어난 나로서는 많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절집에 들어온 지도 반백년이 지났습니다. 시은만 지고 있어 무거운 업만 쌓여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져 일년 내내 감기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며 가래가 목구멍에 걸리어 괴롭고 기침이 심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백 년 이백 년 더 살다 간다고 해도 아쉽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지금 더 살려고 버둥댄다면 그것은 생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은 윤회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그 윤회의 씨앗인 애착을 버리고자 합니다. 좀 힘이 남아 있고 정신이 또렷할 때 단식을 하면서 마지막 정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위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올 때는 업연에 끌리어 오는 줄 모르고 왔지만 갈 때는 알아차림으로 한 생각 챙기면서 가는 줄 알고 가고 싶습니다. 올 때는 비록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며 가고자 합니다. 나를 억지로 병원으로 데려가 영양제를 놓고 음식을 먹이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중들께 짐 지워 드려 죄송합니다.

七十五年空幻身
칠십오 년을 살아온 허망한 이 몸
東西南北空自忙
이곳저곳 공연히 바삐 돌아다녔네
世緣已盡空手去 세상 인연이 다하여
빈손으로 가노니
白雲靑山空來去
백운이 청산에 공연히 왔다가네
大玄 合掌

〈끝〉 〈작가〉

2022년 파송 및 2021년 예비

남·여 군승 장교 요원 모집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남·여 예비 군승 장교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 사미 / 사미니계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스님
-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년도 연령이 만 35세(기준: 만 35세 되는 해 1.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원서 접수기간 / 접수처** : **2021. 12. 28**(화) 한 / 군종교구 종무실
- 보내실 곳 : (0438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교구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교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 **02-797-7266** / 군종교구 종무실

불기2565(2021)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대행 스님

정작 상태와 나를 위한다면 안으로 불을 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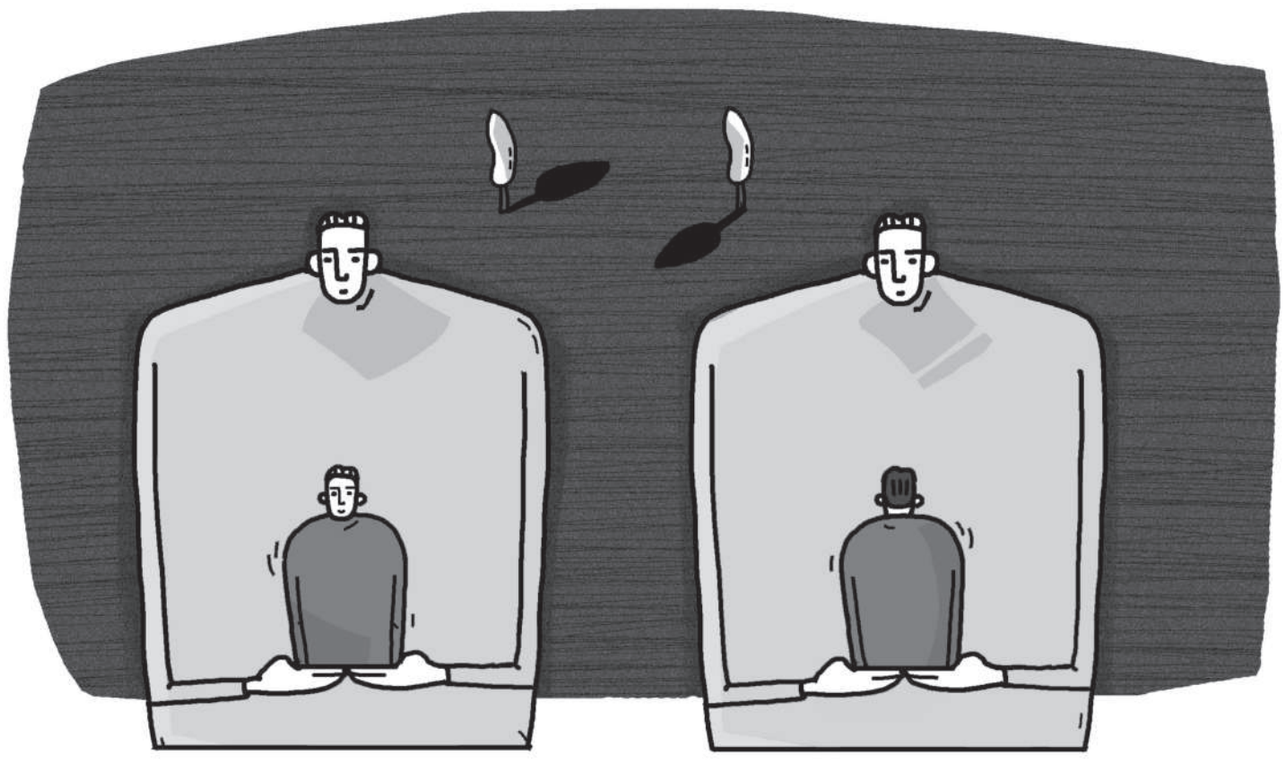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떻게 잘 회향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불교에서는 일체 공덕을 회향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회향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시시각각으로 회향을 하는데 회향이 무슨 따로 있나요? 아니, 밥을 먹고 끝나면 회향이요, 똥을 누고 일어나면 회향이요, 말을 하고 끝을 마치면 회향이요, 모든 게 회향 아님이 없어요. 시초가 있고 회향이 있어서, 우리 살림살이 어떤 거 하나도 떠나지 않는 것이 회향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이 이치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근본을 진짜로만 믿는다면 모든 게 회향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애석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애한테 뜀박질을 해서 천 리를 뛰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더러 사회에 나가서 벌이해 오라고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어떠한 애로점이 내 앞에 닥쳤는데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수없이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갖다가 주기까지 하면서 일러 드렸는데도 모두들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먹는 거는 자신이 먹어야 되겠죠. 대부분 세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 오신 분도 있고, 오셔서 좀 희미하게라도 아는 분이 있고, 이해를 완전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한마음 소식을 얻었다 하는 분도 있고, 그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어린애들이 집에서 노는데 불이 나니까 사탕을 줘서 끌어내려고 "너 장난감 이런 거를 줄 테니까 얼른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어린애들을 건지듯이, 여러분에게서 괴로움과 정말 견디지 못할 문제들을 볼 때 사탕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괴로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울면 내가 울음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은 인연의 줄 없는 줄이 얽혀 가설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언짢아지고 눈물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남이 울면 덩달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바로 줄 없는 인연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비바람이 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요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애석하게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럽니다, 마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요.

왜냐하면 좀 믿음을 가지고 간다 하는 사람 앞에 오장육부 속에서 모든 인과로 인해서 모인 중생들이 제가끔들 일어납니다. 과거에 인과를 지은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악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또 내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몸속에 있는 수십억의 의식들이 좋고 나쁜 거, 자비, 사랑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통솔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만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땅이 솟고 찢어지고, 온통 금방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갖고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커버를 못 할 때 무조건 그냥 그냥 탁! 모든 걸 죽든지 살든지 그냥 놔 버리고 근본 자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 마음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질문 자식이 어릴 때는 너무 예쁘기만 했는데 애들이 조금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저의 애간장을 태우네요. 너무 답답하던 차에 유튜브를 통하여 스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어 마음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이 아들로 인해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 내 주인공만이, 그 아들의 주인공도 둘이 아닌 까닭에, 내 주인공만이 내 아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믿고 내 근본 자리 주인공에다 맡겨 보세요. 바깥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가정의 우환이나 가난한 거나 아픈 거나, 또는 인과응보로 인해서 오는 거나 유전성으로 오는 거나 영계성으로 오는 거나, 모든 일체를 다 그렇게 해서 용광로에 헌쇠들을 넣듯이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쇠가 생산이 돼서 나가죠.

그렇듯이 우리가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새로 생산돼서 다시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대하든지 위대 안 하든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든 거지든 부자든 그건 아랑곳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그것도 아랑곳없습니다. 내가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똥 누면서도 자면서도 항상 내가 내 앞에 닥친 거를….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누가 일어납니까? 엎드러지는 놈은 누구고 일어나는 놈은 누굽니까? 자기가 엎드러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야죠? 결국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나온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 맡겨라 이겁니다, 기계도 조립한 사람이 고치길 잘 고치듯. 맡겨 놓고 '어, 주인공! 내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내 주인공밖에 고칠 수 없구나. 너 알아서 해.' 하고선 맡겨 놓고 관해 본다. 이거 관한다 하는 건 지켜본다 이겁니다. 지켜보면 그때에 바깥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에 자기가 실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똑똑히 들으시고 하신다면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속 썩을 일이 없어요. 자기 주인공에서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건 이 전깃불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갖다 올리면 이 방에도 불이 들어오고 저 방에도 들어오고, 전력이 다 가설이 돼 있으니까 내가 다니면서 스위치 올리면 불 들어오죠? 전력 들어오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 불 들어오는 거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력이 들어오는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오는 과정은 봤다 이겁니다. 불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니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는 건 믿으시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기한테도 영원한 자기의 불성의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악행하는 그 마음도 선행하는 마음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써 '거기에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믿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전력이 보이지 않게 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참 법성신의 그 뜻이 바로 돌아서 나한테 턱 나타날 때 그 기쁨이란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런 조그마한 걸로부터 나를 실험해 보고, 내 몸으로 실험하고, 내 가정으로 실험하고, 내 사회로 실험하고, 또 어떠한 나라로 실험하고, 이렇게 자기가 한번 던져 보고 자기가 실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밝아집니다. 자기 본래면목을 밝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저 전화기도 있어야 하고 냉장고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렇게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 소립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모른다면 어떻게 한 푼어치라도 건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말만 듣고 그냥 '내 주인공에 놓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행을 못 하신다면 그건 말하나 마나 건성 도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는 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부부지간이나 부모와 또 자식, 이렇게 위로나 아래로나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행을 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서로서로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없는 무심의 자비심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떠한 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맡겨 놓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정말이지 부모 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모 된 자격이 있어야 부처 될 자격도 있죠.

여러분이 항상 집안에서 요만한 코끼트리 조금 기분 나쁘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식들한테라도 그 불충분한 말을 하시는 반면에, 그 춥고 배고픈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떠지고 흩어지고 이렇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모두가 종지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차원의 그릇이 바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제가끔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옳다고 그러는 걸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옳다고 할 수도 없으니,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하는 그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고, 또는 평등한 마음로써 부드럽게 항상 말해 줄 수 있고,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말없이 말없는 데 가서 서로 접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로 해서 말로 듣게 하지 말고, 뜻으로 해서 뜻으로 듣게 이렇게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무심으로서 바로 그 전달 없는 전달이 됨으로써의 그 가정은 밝아지고 바로 편안해지고, 바로 이 마음속에도 생명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린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행을 못 하고 말로만 배워서 간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 공부를 해서 소견으로서 살지 말고 지견으로서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부드러운 말로 이끌어 줄 줄 알고 또 안아 줄 줄 아는 평등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요, 또는 자유인의 인간이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요 이런 겁니다.

노인을 보면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어린애를 보면 내 동생으로 생각하고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또 같은 젊은이들을 보면 내 형제와 같이 생각을 하라. 사랑 사랑, 말로만 사랑하지 진짜로 행을 그렇게 안 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건 짓밟히고 마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 보면 남도 배고픈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닐까요? 내가 아파 보면 남이 아픈 것이 그렇게 참 눈물 나고, 그런 것을 자기가 지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이 뭔지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재산 탕진하는 오빠가 원망스러워요

질문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도 참으로 공부의 인연인가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저희 오빠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집안 재산을 거의 탕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부하는 불자로서 마음을 내 줘야 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앞서 관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괴롭습니다. 제가 마음을 녹이고 잘 관한다면 오빠도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 알고 본다면, 그저 부처님 앞에 가서 빌어도 나를 위해서지 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빈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지 그 상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보기가 안됐고 내가 살기가 어지럽고 내가 당장 좋지 못하니까 비는 거죠. 그렇듯이 정작 그렇게 상대와 나를 위한다면 안으로 불을 켜세요. 우리 한 식구가 열 명이라도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마치 한 집안에 불을 켤 수 있게끔 가설이 된 것처럼요. 그런데 가설은 다 돼 있지만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을 켜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불은 안 들어와요.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으니까, 통신이 되지 않으니까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한마음이 내면에 통신이 되면 통신이 되는 대로 그 통신을 받고, 빛보다 더 빨리 움죽거려서 응신으로서 나투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로서 벌어먹지 못하고 그냥 극매는 것을 본다거나,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을 본다든가, 또 싸움을 해서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본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때도, 가족이나 친척의 문제들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서 '어휴, 저거….' 이런 게 있죠. 그냥 남을 해치기만 하고 일가친척인데도 그냥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이러면 마음이 가질 않죠?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건져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도리를 배우는 사람에 한한 것이죠. 내면에 꼭 '둘이 아닌데 모두가 불쌍하잖아!' 하고서 거기다 맡겼을 때에 바로 무명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건지는 겁니다. 이 모두가 병을 낫게 해 줘도 건지는 거, 또 마음의 병을 낫게 해 주는 것도 건지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하다 잘못돼 가지구요,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냥 이러고저러고, 미친 사람 모양으로 밥도 떠먹지 못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느냐고, 그러고선 잘 이렇게, 오는 대로 가르쳐 줬죠. 가르쳐 주었더니 지금은 아주 괜찮게 나았어요. 그러니 그게 마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서 통신이 되면 모두 작용을 해 주기 때문이죠. 작용만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몸도 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대기를 해야만 됩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들이 돌아가면서 우주간 법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그럼 지구에도 그런 법계가 있느냐? 지구에도 세포가 있죠, 인간에게도 세포가 있고요. 그래서 세포가 있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대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도 항상 마음으로써 그렇게 전달을 하면 안에서 누진(漏盡)으로 해서, 즉 골수로 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면, 왜, 군인들이 통신을 받으면 재깍 돌진하죠? 재깍 일어나서 작용하죠? 그렇듯이 재깍입니다. 그러면서도 빛보다 더 빨라서 그 순간에 미국도 갑니다. 그 순간에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원에서 "스님, 각혈을 하고 영 이렇게 낫질 않는데 관해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았다고 그러지. 하하하.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또 그 사람이 죄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업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못 합니다. 즉 말하자면 죄고 뭐고 다 둘로 보지 않고 나로 보는 거죠. 이런다면 바로 재깍, 또 전화가 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피가 다 멈추고요, 이제 멀쩡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알았어." 하고 대답할 때나 나았다고 하는 전화를 받을 때나 똑같은 기분이에요. 더하고 덜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깨친 사람은 잘해도 잘한 거고 못해도 잘한 겁니다. 그게 못한 것이 아니니까요. 뭐가 잘못된 사람이 "남들하고 똑같이 스님한테 오는데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러거든요. 그건 마음이 삐뚤어져서 자꾸 달아나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달아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이 되면 그때는 다시 돌아서게 돼 있거든요. 그때에 해야 부러지지를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안 해 보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전연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배를 보배로 쓰지 않고, 허허, 뭘로 쓸까요? 독사처럼 쓰기도 하고 또 강도처럼 쓰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다음 생에는 그냥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또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로 아주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 **제일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커버를 못 할 때**
> **모든 걸 그냥 탁!**
> **모든 걸 죽든지 살든지 그냥 놔 버리고**
> **근본 자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아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질문 좋은 부모, 좋은 아내로서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어 가고 싶은데 늘 저의 분별심이 먼저 작동하여 가정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제가 남편과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정말 자비로운 아내와 엄마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람은 물질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물질을 주고받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러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건 형식이지 진짜가 못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전자 '부(父)'와 현자 '자(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한다면 일차적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견성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고, 남의 마음을 아는 게 없이 알고, 또는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없이 알고, 보는 게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게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법의 철퇴를 친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쳤다 이런 게 없이, 모두 하나로 구성된 자리에서 법으로서 내리는 철퇴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한 그 자리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발 내려딛고 법신으로서 법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로 붙들려 가서 법으로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처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경찰서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너무도 극치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업식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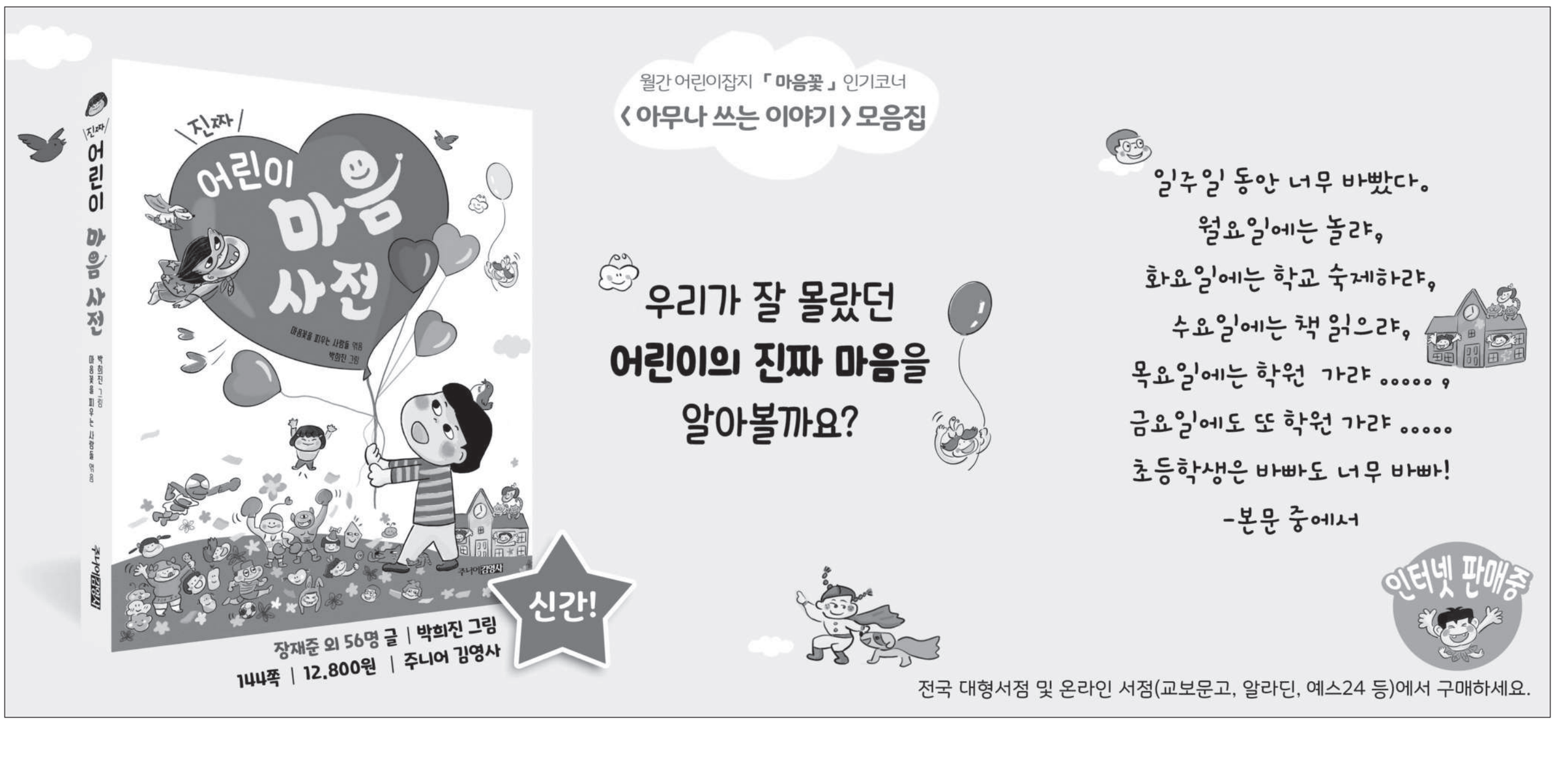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아무리 급한 게 있다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기라고요. 자식이나 부부지간, 부모지간에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친척지간에 잘못된 게 있다 해도 그것을 바깥으로 내놓고 정색을 해서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왈가왈부하지 말라고요.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안에다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주라고요.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 주면서 내 탓으로 돌린다면…, 내 탓으로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없었다면 왈가왈부할 것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모두 내 탓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나간다면 가정과 부부와 자식 사이에 모두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즉 말하자면 도의, 의리를 지켜서 우리가 화목하고 자유스럽게 웃고 살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죠. 남을 이익하게 해 주고 고통 속에서 건져 주는 바로 그것이 자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부인지요

질문 좀 부끄러운 질문입니다만 다들 "공부 공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공부하는 것인지요.

답변 딴 게 없습니다. 생활 속에 공부는 있으니까요. 생활 속에서 그냥 자식들한테나 남편한테나 부모한테나, 만약에 순조롭게 하지 못하고 악하게 굴어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을 자처하는 것이고, 또 아주 속이 상하더라도 내면에다가 '주인공, 당신만은 알잖아. 당신만이 저 사람의 마음을 괜찮게 해 줄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으시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을 한다면 지옥은 다 무너지고 업보도 다 무너지고 아마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게 공부예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현불 논단

소통하는 지도자가 '보살'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누구든 겨울나기 쉽지 않은 일
김장도 겨울 준비하는 韓 문화
코로나로 겨울은 길고 깊을 뿐

겨울 길어지면 봄은 더 기대돼
봄 첫머리 대중 위로한 연등회
지혜 등불로 나아갈 길을 밝혀

대선 후보 흠집내기 경쟁 아닌
국민들 등불 같은 비전을 바라
'다르다'는 생각 갖고 소통하길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리고 기간이 짧든 길든, 겨울을 나는 것은 쉽지 않다. 먹거리가 부족해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은 가을에 들어서면 일찍부터 겨울나기 준비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래된 추억처럼 남아있는 연탄 들여놓기가 그러하고, 요즘도 대부분의 집에서 놓치지 않는 김장김치 담그기 역시 겨울나기 준비의 일환이다.

특히 김장김치 담그기는 요즘에 이르러서는 풍습의 의미가 더 강한 것처럼도 보인다. 가족이 모이고 가족이 겨울과 봄을 나는데 필요한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는 동안 가족 간의 정이 더해진다. 예전에는 겨울 동안의 생존 문제였지만, 지금이야 즐거운 풍습이면서 문화의 기능이 더 강한 듯도 보인다. 때로는 그 과정이 문화가 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고비를 넘는 옛 사람의 지혜가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했을 것이다.

옛 사람들이야 그때그때 맞추어 겨울나기를 위한 지혜라도 발휘했는데,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19라는 이름의 겨울은 그런 지혜를 사용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는 끝을 모르는 우울감과 피로감이 사람들을 더욱 지치게 한다. 절기상으로도 한창 겨울이다. 거기에 코로나로 지친 일상의 삶이 겨울을 더욱 길고 힘들게 한다.

겨울이 깊어지면 봄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더욱 강해진다. 봄이 멀수록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다. 그 마음들을 달래고 어루만진 것이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정월의 연등회(燃燈會)였다. 부처님께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중생들이 나아갈 길을 밝혔듯이, 그 마음을 따라 겨울이 절정, 봄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펼쳐지는 것이 불교국가들의 연등회였다. 왕을 필두로 하는 국가지도층이 앞에 서서 긴 겨울나기에 지친 백성을 위로하고, 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는 상징적인 국가의례가 연등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음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대통령 선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 많은 정쟁들도 빗발치고, 경쟁후보를 흠집 내는 일들도 빗발쳐서 지친 국민들을 더욱 피로하게 한다. 희망을 향한 한바탕 축제여도 모자랄 텐데,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도 쉽게 자행된다.

부처님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는 늘 우리 삶에 도움 그리고 희망을 보태주는 지도자를 기대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간질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기대한다. 다함께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지도자야말로, 긴 겨울나기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사회에 등(燈)을 밝히는 보살일 것이다.

국민들이, 그리고 중생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긴 겨울나기가 가져다 준 지치고 피로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희망, 등불 같은 비전이 아닐까. 갈등을 부추기는 편 가르기나, 상대방에 대한 흠집 내기 경쟁은 더 이상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는 명확하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각각의 해법들은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옳고 틀리다기보다는, 서 있는 입장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게 보인 결과일 것이다.

신라의 원효 스님은 서로 다른 견해와 주장에 대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의 관점에서 볼 것을 주문한다. '옳다거나 그르다'는 생각은 시비와 갈등을 부르는 씨앗이 되고, '다르다'는 생각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긴 겨울나기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기대를 반영하는 비전을 보여주려면, 소통이 먼저라는 생각을 지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중생의 등불이 되는 보살인 까닭이다.

社說

전통문화 보존, 불교 책무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상정해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이 전통문화 홀대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 표 예산안은 '슈퍼예산'으로 지칭될 만큼 대규모였지만,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증액요청은 사실상 묵살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예산증액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증액안'은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20%로 책정됐던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자부담율도 애초 논의됐던 10%가 아닌 5% 경감에 그쳤다.

이번 예산안 증액은 불교계 요청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불교이익보다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사찰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보존전승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단 불교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찌보면 유구한 세월 이어져 온 우리민족의 역사문화와 전통이기에, 여러 규제와 법적인 제약에도 이를 감내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시선이 더 불편한 이유는 또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및 왜곡발언이 이미 한차례 불교계에 상처를 준 바 있다. 당차원에서 이를 사과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불교계 노력에 감사한다.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와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문화 예산이 불교가 아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보하는 비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템플스테이 20주년에 거는 기대

내년 템플스테이가 운영 20주년을 맞는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으며, 2002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직지사에서 진행된 주한외교사절단 템플스테이가 시초다. 이제 성년을 앞두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전통문화관광콘텐츠가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8~10일 진행한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에서 20주년 사업 기조와 방향을 발표했다. 대국민 감사 이벤트부터 기념식, 세미나까지 다양한 행사와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내년 11월 선포 예정인 리뉴얼 템플스테이 브랜드에 대한 기대는 크다.

2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는 성과만큼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실제 템플스테이를 '문화'가 아닌 '종교'로 인식하는 대중들의 편견부터 체험관광 상품으로 부상하는 중국, 일본의 템플스테이까지 안팎으로 위협 요소들이 적지 않다.

연수에서 이뤄진 정책 연구 세미나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제 템플스테이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영 품질 관리와 인력 지원 강화, 사회 공공성 확대와 같은 제언들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운영사찰들도 개방적인 사고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템플스테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됐다. 더 발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은 필수다. 무엇보다 대중들의 니즈와 시대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밝은 눈이 필요하다. 내년이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12월 1일은 제34회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다.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이뤄졌다. 내가 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KINHA(한국 HIV/AIDS 범종교연합)'에서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자들의 외로움과 그에 따른 돌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애인들은 장애등록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HIV감염인들은 장애자가 되기를 오히려 원하고 있는 실정이니 환자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하고 고립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얼마 전 병원 법당에 다녀간 50대의 남성 환자는 약 두 시간을 대화하며 한동안 울었다. 그동안 무수히 삼켰던 깊은 회한의 눈물이리라.

뇌전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 검사를 받으면서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죽고 싶었지만 연로한 노모를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 살아냈다. 반신불수로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던 몸이었지만 2년동안 눈물겨운 재활의 노력으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 한시도 염주를 놓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노모에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다.



그림 · 최주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가슴을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신 거예요?"

환자는 숨을 깊게 내쉰 뒤 한참 후에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 동생만 알아요. 제 동생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와서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동생도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저를 이해하겠습니까."

"거사님, 가족들로부터 정말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거사님, 스스로는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계실까요?"

환자는 깜짝 놀란 듯 눈물을 멈추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아프고 저마다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또한 하나의 병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이 병을 화두 삼아 '진짜 거사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병이 낫는 것이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환자는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삼배를 올리고 떠나갔다. 배웅하러 병원 밖에까지 함께 걸었다. 합장하며 몇 번을 돌아보는 환자를 보내며 하늘을 올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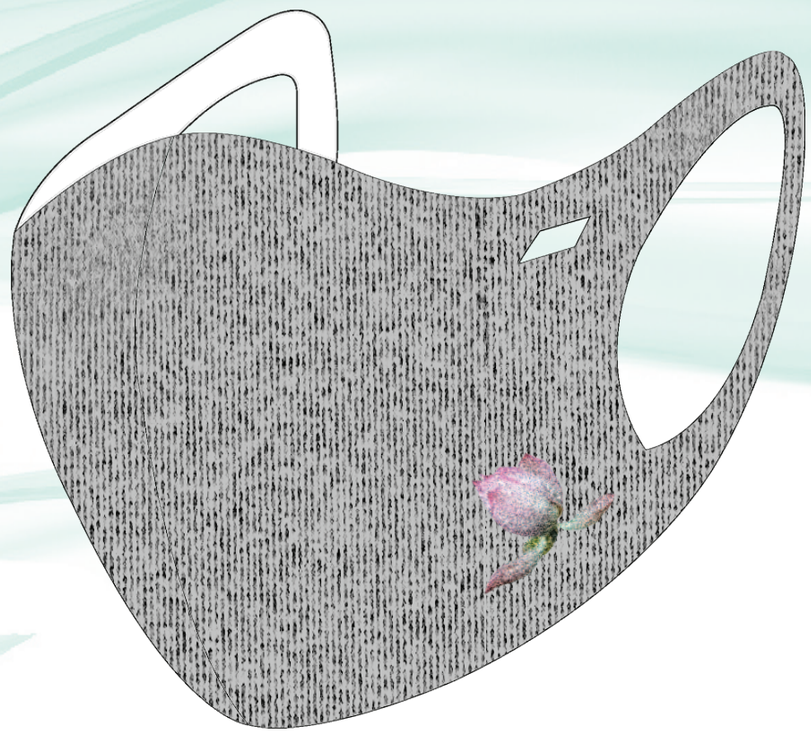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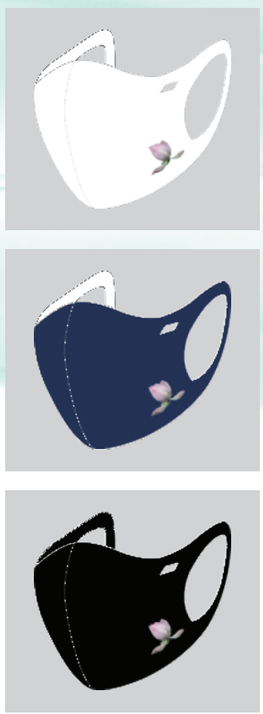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연꽃마스크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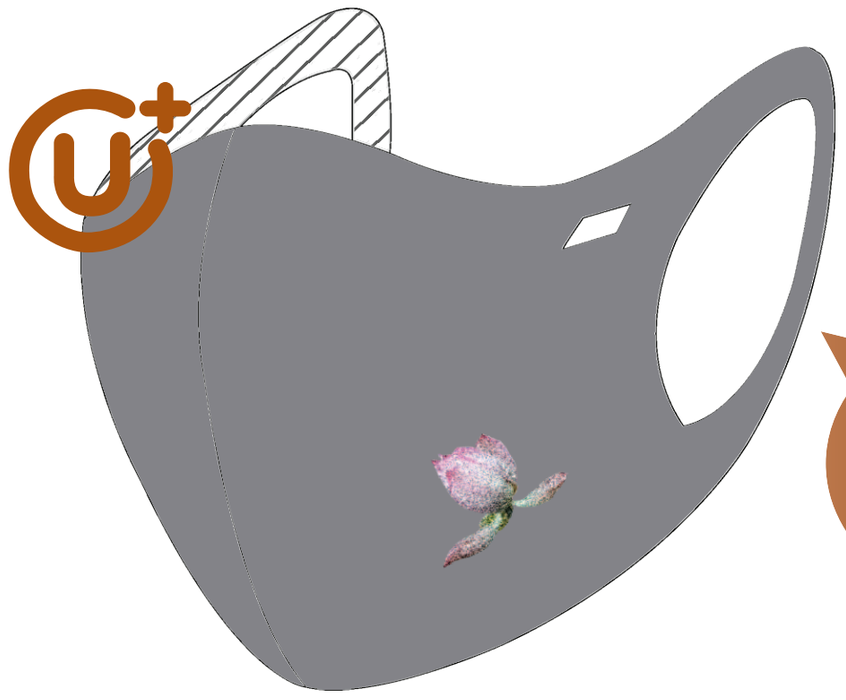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 (연꽃문양/5색)

2중 압축 NEW!!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는 이중압축으로 제작하여 기존 제품보다 발수기능이 우수한 **숨쉬기 편한 마스크** 입니다.

기존제품과 다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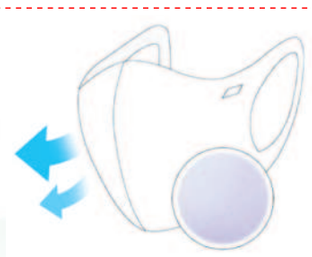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합니다.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아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연꽃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